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언

김경록*

1. 머리말
2. 임진왜란 발발(전쟁원인)과 전개(전쟁경과)에 관한 연구경향
3. 임진왜란 이후(결과,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경향
4. 중국과 일본의 연구경향
5. 향후 연구제언

1. 머리말

한국사에서 조선시대는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중요시기로 근세라는 시대구분을 사용한다. 조선시대의 세부적인 시대구분을 할 때, 초기, 중기, 후기의 3시대 구분과 전기, 후기의 2시대 구분이 일반적인데, 임진왜란이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적용될 정도로 임진왜란은 단순히 16세기에서 17세기로 이행뿐만 아니라 조선사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잣대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임진왜란은 한국사의 필수적인 연구분야이자 전쟁사의 측면을 넘어서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전환점이었다. 또한, 1592년부터 1598년에 이르는 7년간 조선, 일본, 명뿐만 아니라 여진(후금), 유구, 태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영향을 미쳤던 임진왜란은 그 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가 특히, 삼국에 있어 처절하게 기억되고 역사전개에 흔적을 남겼다.

임진왜란에 대한 통사적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는데,¹⁾ 임진왜란 연구에 있어 교과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 전문적으로 임진왜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²⁾ 임진왜란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일제강점기 최남선, 강효석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³⁾ 해방이후 한국학계의 연구는 김성철과 한우근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최영희에 의해 본격화되었다.⁴⁾ 특히, 최영희는 임진왜란의 사회동태, 거북선, 의병, 대외관계, 성격, 인물과 이해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임진왜란의 통사적 연구에 있어 기념비적 업적은 이형석의 연구이다.⁵⁾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임진왜란 관련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여 연대기적으로 정세,

-
- 1) 한국사에서 임진왜란을 집필한 성과는 이상백, 『한국사』 4, 진단학회, 196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 하, 1977; 이장희, 「壬辰倭亂」, 『韓國史論』 4, 1981; 최영희, 「일본의 침구」,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84; 장학근, 「임진왜란」,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2 등이다.
 - 2)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1987; 최영희 외, 『임진왜란의 재조명』, 국사편찬위원회, 1992;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정두희, 이경순 역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편저, 『임란 의병사의 재조명』,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안동시, 2012;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7, 육군본부, 2012.
 - 3) 강효석, 『동국전란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최남선, 『임진록』 동명사, 1931.
 - 4) 김성철, 「임진왜란, 정유재란」, 『조선역사』,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6; 한우근, 「임진란 원인에 관한 김토-풍신수길의 전쟁도발원인에 대하여」, 『역사학보』 1, 1952; 최영희, 「임진정유란시 연해민의 동태」, 『사총』 2, 1957; 「龜船考」, 『사총』 3, 1958; 「임진왜란의 성격」, 『사학연구』 8, 1960; 「임진왜란」, 세종대왕사업기념회, 1974 등.
 - 5)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조선·일본·명의 전투, 전쟁지휘, 관련 인물 등에 이르기까지 서술했다. 물론 한중일의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없지는 않지만, 단일 연구성과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전쟁배경부터 전쟁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리했다.

이후 한국학계는 50~60년대 일제 식민사학의 극복이란 당면과제에 충실하여 임진왜란을 통한 국난극복사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70년대에 군사사 분야의 학문적 이해가 심화되면서 임진왜란 연구는 보다 진척되었다. 80~90년대 영웅사관에 대한 지양과 임진왜란의 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군제, 군수, 무기, 전술, 관방, 정보 등 임진왜란 연구는 확장되었다.⁶⁾ 2000년대 이후 임진왜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쟁원인, 배경, 세부적인 전쟁과정(전투, 군제와 무기, 인물, 의병, 명군, 승병, 강화교섭, 사회, 경제), 전쟁결과(항왜와 피로인, 문화교류, 왜성, 인식, 후대의 서술, 교과서, 여성, 문학) 등으로 확대되어 심화되었다.

학계의 높은 관심은 임진왜란의 회고와 전망을 다양하게 진행했다. 임진왜란 관련 연구사정리는 학설사적 검토, 명랑해전·교과서·대마도·의병·인물·중국학계 등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한 정리,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한 정리 등이다. 특히, 2012년을 한 해 앞둔 2011년에 집중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한 성과가 도출되었다.⁷⁾ 이 외에

6)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7) 北島万次,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に關する學說史的檢討」,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掠』, 校倉書房, 1990; 오종록, 「壬辰倭亂~丙子胡亂時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군사』 38, 1999;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민덕기, 「조선후기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 2002; 오종록,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이순신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사학보』 16, 2004; 이장희, 「임란중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1, 2004;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六反田豊 외 6인,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한일역사공동보고서』 제3권, 2005; 노영구,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동아시아세계와 임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에 동양사, 한국사의 임진왜란 관련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역사학에서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글은 대부분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의 연구사정리는 임진왜란의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본 글은 이러한 연구사정리를 바탕으로 임진왜란의 연구경향을 새롭게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사 전반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 아니라 본 글은 특정 임진왜란을 대상으로 연구경향과 성과를 정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제 분야와 관점을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전쟁이전(배경, 원인), 과정(전략, 전투, 수군, 이순신, 명군파병, 의병, 승군과 불교, 군수, 강화교섭, 사회·경제), 전쟁이후(항왜, 피로인, 왜성, 문화교류, 인물, 여성, 교과서, 문학, 인식과 후대의 서술), 중국학계와 일본학계 등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와 연구사정리가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기존 연구경향을 언급하되 주로 본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본 정리를 통해 기존의 임진왜란 관련 연구사흐름을 정리하여 다소 미흡한 분야와 관점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임진왜란 연구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 필자의 한계로 서구학계의 연구경향을 다루지는 못했다.

진왜란』, 경인문화사, 2010; 中野 等, 「‘文祿慶長の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보고서』, 2010; 北島万次,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 대한 학설사와 연구과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유보전, 「중국학계의 임진왜란사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사학보』 45, 2011; 한문중,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전북사학』 38, 2011; 하우봉, 「임진전쟁에 대한 재검토」, 『간지인문학』 5, 2011; 정해은, 「임진왜란 의병연구의 성과와 전망」,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안동시, 2012; 장순순,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하태규,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2015; 신성재, 「명량해전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사연구』 170, 2015;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38, 2016.

2. 임진왜란 발발(전쟁원인)과 전개(전쟁경과)에 관한 연구경향

임진왜란의 전쟁원인에 대한 연구는 16세기 동아시아 삼국의 정세와 명 중심 국제질서의 변동이란 시대배경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쟁을 발발시킨 일본과 풍신수길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했다. 기존 전쟁원인에 관한 연구는 풍신수길의 개인적 야욕, 감함무역의 재개, 국제교역의 문제, 일본의 전국통일과 군사적 측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국제정세, 일본의 변화, 조선의 상황, 명의 정세 등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인 설화, 정권성격, 역사계기, 국방체제, 통신사행과 인식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임진왜란 이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정세에 대한 연구,⁸⁾ 일본 전국시대와 풍신수길 정권, 일본의 대외침략에 활용된 神功皇后說話, 일본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⁹⁾, 조선의 전쟁 이전 정세와 대비,¹⁰⁾ 명의 정세와 파병에 대한

8) 한문중, 「壬辰倭亂 직전의 국내정세와 韓日關係」, 『인문과학연구』 21, 2009; 이계환,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2010; 한명기, 「임진왜란 직전 동아시아 정세」,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9) 박수철, 「15·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와 도요토미 정권」,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이기용, 「일본침략사상의 원형인 ‘神功皇后說話」」, 『일본사상』 13, 2007; 구태훈, 「임진왜란 전의 일본사회 -전국시대 연구 서설-」, 『사림』 29, 2008.

10) 김성철, 「임진왜란 한성 방화사건을 통해 고찰한 정치적 압제와 저항」, 『역사와 사회』 26, 2001; 김강식, 「16세기 후반의 대일 인식과 정치사적 의미」, 『역사와 경계』 43, 2002; 차혜원, 「조선에 온 중국첩보원-임진왜란기 동아시아의 정보전과 조선」, 『역사비평』 85, 2008; 민덕기,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 동북방 여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7, 2010; 김덕진, 「1587년 損竹島 倭變과 壬辰倭亂」, 『동북아역사논총』 29, 2011; 윤호량, 「선조 16년(1583) ‘尼湯介의 亂’과 조선의 대응」, 『군사』 84, 2012; 민덕기, 「이율곡의 십만양병설은 임진왜란용이 될 수 없다 : 동북방의 여진 정세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 41, 2012; 「경인통신사의 활동과 일본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하우봉, 「김성일의 일본인식과 귀국보고」,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이경룡, 「임난시기

연구¹¹⁾ 등이다. 이러한 관심은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한 규명에 집중되었다.¹²⁾

국제관계사로서 임진왜란을 분석한 연구는 임진왜란의 국제전쟁으로서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16세기 동아시아의 변화 속에서 임진왜란을 분석, 한중관계와 연계한 연구, 조선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연구, 조공책봉관계로 본 임진왜란, 임진왜란으로 인한 조선의 대외인식 변화와 再造之恩, 국제교역과 관련성, 명청교체의 시대상황 속에서 임진왜란, 임진왜란과 대마도·여진관계 등이 연구되었다.¹³⁾ 국제정치의

조선의 安民과 自強의 정책순위와 經濟사상, 『역사교육논집』 49, 2012; 민덕기, 「임진왜란용이 되어버린 울곡의 십만양병설」, 『역사와 담론』 65, 2013;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현실』 87, 2013; 윤경하, 「壬辰倭亂 직전 戰爭情報과 조선의 對應」, 『강원사학』 26, 2014.

- 11) 장학근, 「倭軍嚮導論에 대한 明·日의 압력과 조선의 대응」,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김한식 「明代 援朝抗倭의 실상 및 그 역사계기성」, 『황중동교수 정년 기념논총』, 1994; 정병철, 「명말의 화북사회와 조선의 왜란」, 『명청사연구』 10, 1999; 차혜원, 「정유재란기 명조의 파병결정과 “공의” 文興君 控於錄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9, 2010.
- 12) 정두희, 「임진왜란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13) 최영희, 「임진왜란중의 대명사대에 대하여」, 『사학연구』 18, 1964; 이현중, 「임진왜란시 琉球 東南亞國人の 來援」, 『일본학보』 2, 1974; 최소자, 「임진왜화와 명조」, 『아시아문화』 8, 1992; 하우봉, 「壬辰倭亂 以後의 釜山과 日本關係」, 『항도부산』 9, 1992; 이민호, 「임난과 한중일의 외교관계」,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김종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대명청관계」,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이지영, 「임진왜란과 대외관계」, 『동국역사교육』 4, 1996;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 이대출판부, 1997;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최소자, 「壬辰倭亂前後 明과 朝鮮」, 『사명당유정』, 지식산업사, 2000; 김문자, 「전쟁과 평화의 근세 한일 관계 -임진왜란과 통신사-」, 『일본역사연구』 18, 2003; 계승범, 「파병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2006; 하우봉, 「해양사관에서 본 조선시대의 재조명-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10, 2006; 유보진, 「임진난 후 조선 對明인식의 변화~再造之恩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11, 2006; 정두희·이경순,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민덕기, 「임진왜란기 조선의 북방 여진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책: ‘南倭北虜’란 측면에서」, 『한일관계사연구』 34, 2009; 조홍국, 「임진왜란에 대한 태국의 실용 외교와 중국의 以夷制夷 외교」, 『동남아시아연구』

측면과 함께 정치사적으로 분석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¹⁴⁾

임진왜란은 조선 건국이후 전국적 규모로 발발한 전면전이자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나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지 못한 지배층의 무능도 있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 따른 국방체제를 변화시키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은 전쟁계획을 세우면서 점령정책을 수립하고, 공세적인 전략을 세웠지만, 조선의 방어전술은 육전에 집중되었으며, 군사력에 있어 열세에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정부는 전쟁지도를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여 초기 패전을 자초했다. 실제 중앙과 지방의 지휘체계는 허실화되었으며, 이이와

19(3), 2009; 이계황, 「에도[江戶]막부의 대외관계 형성과정」, 『한국학연구』 19, 2009; 한일관계사연구회논집 편찬위원회 편,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2010; 한일문화교류기금 동북아역사재단 편,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민덕기, 「임진왜란의 『戰後처리』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11;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계승범, 「임진왜란 중 조명관계의 실상과 조공책봉관계의 본질」,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경계』 85, 2012; 金墩, 「임진왜란사의 庚寅通信使 관련 역사서술의 문제」,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민덕기,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박정민, 「임진왜란과 여진인 ‘來朝’의 종언」, 『만주연구』 18, 2014; 한성주, 「임진왜란 전후 女眞 藩胡의 朝鮮 침구 양상과 조선의 대응 분석」, 『동양사학연구』 132, 2015; 홍윤기, 「東廟의 明 使臣이 지은 懸板에 대한 考證과 그 외교적 문화적 의미에 관하여 -壬辰倭亂 직후부터 丙子胡亂 직전까지」, 『중국학논총』 49, 2015; 장정수,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25, 2016.

14) 정홍준, 「壬辰倭亂 직후 정국의 추이와 北人政權의 成立」, 『사총』 34, 1988;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재조지은’의 형성과 그 의미」, 『동양학』 29, 1999; 오종록, 「여러 얼굴의 전쟁, 임진왜란」, 『내일을 여는 역사』 1, 2000; 부남철, 「조선시대의 대외전쟁과 유교적 和·戰論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5(2), 2006; 한명기, 「“再造之恩”과 조선후기 정치사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9, 2007; 「朝中關係의 관점에서 본 仁祖反正의 역사적 의미 明의 조선에 대한 “擬制的 支配力”과 관련하여」, 『남명학』 16, 2011.

유성룡의 국방대책을 활용하지 못했다.¹⁵⁾

구체적인 전투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게 진행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주요 전투로 부산진전투, 동래성전투, 상주전투, 탄금대전투, 임진강전투, 용인전투, 1·2·3·4차 평양성전투, 이치전투, 금산전투, 연안성전투, 북관대첩, 진주대첩, 벽제관전투, 해주대첩, 남원성전투, 직산전투, 울산성전투, 사로병진작전, 사천성전투, 왜교성전투 등 지역별 전투와 군사체제,¹⁶⁾ 침략한 일본군의 동향과 군량지원,¹⁷⁾ 관군의 실태와

-
- 15) 박재광, 「임진왜란기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영향」, 『군사』 44, 2001; 이형석, 「戰史上으로 본 壬辰倭亂」, 『국방연구』 10, 1961; 이재호, 「임진왜란과 柳西厓의 자주국방책」, 『역사교육논집』 11, 1987; 김재근, 「임진왜란 중 韓·日·明 군사의 특징」, 『壬亂水軍活動연구논총』, 1993; 서태원, 「壬辰倭亂에서의 地方軍 指揮體系」, 『역사와실학』 19·20, 2001; 강성문, 「임진왜란 초기 육전과 방어전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노영구, 이민웅, 「조선-일본 전쟁(임진왜란·정유재란)」, (육군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7, 경인문화사, 2012; 장정수,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박희봉, 장경석, 「임진왜란시 조선정부는 무엇을 했나? -행정학자의 시공간적 학문공간 확장을 위하여-」,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발표논문집』, 2015.
- 16) 김용국, 「임진왜란중 서울수복전과 방어계획(상)」, 『향토서울』 22, 1964; 「임진왜란 서울수복전과 방어계획(하)」, 『향토서울』 23, 1964; 최효식, 「임진왜란중 경주전투」, 『경주사학』 10, 1991; 박성식, 「진주성 전투」, 『경남문화연구』 14, 1992; 김석희, 「壬辰倭亂과 釜山抗戰」, 『항도부산』 9, 1992;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 47, 1994; 지승중, 「16세기 말 진주성전투의 배경과 전투상황에 관한 연구」, 『경남문화연구』 17, 1995; 최효식, 「임란 초기 동래성의 항전에 대하여」, 『신라문화』 26, 2005; 이상훈, 「정유재란시 사천지역의 전투와 조명군총의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20, 2006; 김명준, 「임진년 진주대첩과 학봉 김성일」, 『경남문화연구』 30, 2009;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호남군병의 난과 운암전투의 실상」, 『역사와 담론』 56, 2010;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이영석, 「軍事史學的 觀點에서 고찰한 임진왜란 시 청주성 및 금산성 전투」, 『한국군사학논총』 2, 2012; 박희봉, 「임진왜란 시 1·2차 진주성 전투의 국가통합적 의미」, 『중앙사론』 37, 2013;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 87, 2013; 유연성, 「임진왜란기 한성 주변 전투의 전략적 의의」, 『한일관계사연구』 48, 2014; 신윤희, 「임진왜란기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 『역사학연구』 53, 2014; 정영태, 「정유재란시 南原城戰鬪와 萬人義塚」, 『역사학연구』 56, 2014; 임선빈, 「해주대첩에 대한 當代의 기록과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75, 2015.
- 17) 이종봉, 「임진왜란시기 일본의 병량미 보급과 그 정책 : 제1차 침략전쟁의

왕실의 입장,¹⁸⁾ 지방관의 전투활동,¹⁹⁾ 방어시설로 산성축조,²⁰⁾ 인물을 중심으로 전투²¹⁾ 등이 연구되어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의 부실한 전쟁 준비와 초전의 패전양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전승의 이미지로 인식되었으며, 이후 임진왜란 그림으로 표현되었다.²²⁾ 지상전에서 조선군은 체계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하여 패전하였지만, 지방군의 정비와 수령들의 활동으로 초전의 패배를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임진왜란의 전투는 바다를 건너 침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상전 못지않게 해전이 중요하였다. 한국학계는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도대첩, 안골포해전, 칠천량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수군의 승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 극복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오랜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민웅에 의해 종합 정리되었다.²³⁾ 해전연구는 60년대 최석남의 연구가

초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7, 2006;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군사』 95, 2015.

- 18) 신명호,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군사』 81, 2011; 하태규, 「임진왜란 초 호남지방의 실정과 관군의 동원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 2013;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 19) 정혜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 지원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안집사 김득의 역할과 활동」, 『영남학』 28, 2015; 정혜은, 「임진왜란기 대구 수령의 전쟁 대응과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경계』 98, 2016.
- 20)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의 산성 축조와 전투」, 『지역과 역사』 33, 2013.
- 21) 김기승, 「홍가신과 임진왜란 : 충청 지역 지방관이 경험한 임진왜란 전후의 조선사회」, 『한국인물사연구』 8, 2007; 김진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 경상좌병사朴晉과 權應銖의 활동을 중심으로」, 『군사』 84, 2012; 김경숙, 「임진왜란 초기 지방관의 守土活動 -善山府使丁景達 형제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5, 2013; 김진수, 「임진왜란기 朴晉의 군사 활동과 평가」, 『한국사학보』 60, 2015.
- 22)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화가산현립박물관 소장 <임진왜란도병풍>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31, 2003.
- 23) 이민웅, 「조·명 연합함대의 형성과 노량해전 결과」, 『역사학보』 178, 2003;

선구적이며,²⁴⁾ 2000년대 들어서 전함에 대한 연구, 각 해전별 세부연구, 해전지휘관에 대한 연구, 수군 무기체계, 수군신호체계 등 연구가 있다.²⁵⁾ 수군과 해전연구의 큰 흐름은 이순신에 대한 연구이다. 이순신 연구는 한국학계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난중일기』를 비롯한 기록물, 이순신의 행적, 활동, 전략, 리더십, 가계, 해전별 전술, 전쟁대비, 조명연합수군의 관계, 선조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전후 공신책봉, 후대의 인식, 명과 일본의 이순신에 대한 인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²⁶⁾ 또한, 수군과 해전에 대한 연구는 해군사관학교의 해군군사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본 朝·明·日 삼국의 전략전술 비교」, 『군사』 51, 2004; 이민웅, 「임진왜란과 동북아 삼국의 해양전략」, 『도서문화』 25, 2005.

- 24) 최석남, 『한국수군사연구』, 명양사, 1964; 『한국수군활동사』, 명양사, 1965.
 25) 이원식, 이기표, 「임진왜란 및 난후 전함의 노역과 대포 장착 위치에 대한 고찰 -전함의 노역 위치와 대포 장착 위치의 중첩론에 대하여-」, 『대한조선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권 1호, 2003;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의 부산포해전과 의미」, 『역사와 세계』 30, 2006; 김낙진, 「임진왜란기 이영남 장군의 수군 활동」, 『중원문화연구』 11, 2007; 박진철, 「고문서로 본 17세기 조선 수군 戰船의 武器體系」, 『영남학』 16, 2009;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수군 깃발의 형태와 용도」, 『장서각』 25, 2011; 장학근, 「壬辰倭亂期 朝·日·明三國의 水軍 運用策」, 『군사』 85, 2012; 신호승, 「정유재란 초기 조선 수군의 작전 수립과정과 활동」, 『역사와 경계』 88, 2013;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노영구, 「<征韓偉略>에 나타난 일본의 임진왜란 海戰 이해」, 『이순신연구논총』 22, 2014; 정완희, 「임진왜란 한일 함선 전투력 지수 연구」, 『군사』 92, 2014; 나승학, 「임진왜란 전후 조선 수군의 군사체계 비교 연구」, 『군사』 97, 2015; 송기중, 「17~18세기 수군 軍船의 배치 변화와 개선 방안」, 『동방학지』 169, 2015; 송은일, 「임진왜란 初期海戰 勝捷을 주도한 전라좌수군의 동력」, 『호남문화연구』 59, 2016.
 26) 허선도, 「임진왜란에 있어서의 이충무공의 승첩 -그 전략적 전술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 1980; 김영환, 「이순신의 해전과 호남인의 애국정신 : 애국인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7(2), 2004;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 막하인물의 활동」, 『역사와 경계』 52, 2004; 노영구, 「이순신의 리더십에 나타난 소통의 노력」, 『역사비평』 89, 2009; 김경록, 「임진왜란 시기 수군지휘관 이순신과 원균의 리더십 비교」, 『이순신연구논총』 11, 2009; 이민웅,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몇 가지 인식문제 고찰-가계, 관력, 역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7, 2010; 제장명, 「露梁海戰과 이순신 戰死 狀況에 관한 고찰」, 『군사』 78, 2011; 임익순, 「이순신 지휘

연구실에서 관련 연구를, 이순신 연구는 순천향대학의 이순신연구소, 전남대학의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를 비롯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이순신연구논총』, 『해양문화연구』 등 학술지를 통해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상전에서 조선군의 연전연패는 일본군이 한양, 평양까지 점령하는 사태로 전개되었다. 평양에서 의주의 선조를 압박하던 일본군은 후방 지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에 의해 전술적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의병은 임진왜란 연구의 가장 방대한 성과를 냈다. 한국 학계에서 의병은 처음 국난극복의 자생적 노력으로 조망되었으며, 연구가 진척되면서 의병의 성격, 출신별 관계성, 의병장 중심의 활동, 지역별 의병활동, 실제 의병의 역할, 지역사회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인식과 의병활동, 관군과의 관계, 향촌사회에서 의병활동으로 인한 전후 영향, 학맥에 근거한 의병활동, 지역별 의병활동의 비교, 의병조직의 변화, 의병의 향토방위, 학파별 의병활동, 향촌 사대부의 전쟁경험과 의병 등으로 확대되었다.²⁷⁾ 의병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측면도 있다.

의병과 함께 승병과 불교계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였다. 임진왜란 국난극복의 한 축으로서 승병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

통술의 배경과 실천적 특징, 『군사』 80, 2011; 김경록, 「간양록을 통해 본 이순신과 원균에 대한 인식」, 『이순신연구논총』 16, 2012; 이광연, 설한국, 「조선의 산학서로 보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동방학』 28, 2013; 노영구, 「19세기 일본의 임진왜란 海戰과 李舜臣 이해」, 『한국인물사연구』 24, 2015; 이경식, 「전투력 요소로 본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와 초기전투 승리요인」, 『군사』 98, 2016.

27) 김석희, 「임진왜란의 의병운동에 관한 일고」, 『향토서울』 15, 1962; 조원래, 『입난의병장 김천일연구』, 학문사, 1985;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해안, 2001; 계승범, 「의병의 개념과 임진의병」, 『서강인문논총』 33, 2012; 노영구, 「임진왜란 義兵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새로운 이해의 방향」, 『한일군사문화연구』 13, 2012; 이석린, 『임진왜란과 청주 의병』, 서경문화사, 2014; 허태구,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남명학연구』 41, 2014.

경향에서 승병장 인물연구, 인물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 승병조직과 역할, 사명당의 승병활동과 외교활동, 승병의 동향, 승병과 사대부의 상호인식, 임진왜란 이후 불교계 변동 등 다양화되었다.²⁸⁾ 崇儒抑佛정책의 조선시대 국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던 불교계는 지배층으로부터 새로운 인식을 받았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불교의 유용성을 확산 시키고자 하였지만 전후 국가차원에서 불교조직은 여전히 國役체계의 측면에서만 고려되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패전은 명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국제전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16세기 후반 만력연간 명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명의 능동적인 대응이 부실하여 사회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후금의 흥기로 인한 국제적 위기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침략은 직접적으로 명의 안보를 위협하는 긴급상황이었기에 파병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전후 명청교체의 격변기를 경험하였다. 명군의 파병 및 참전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켜 전황의 변화, 명군에 대한 군량 등 지원, 명군에 의한 사회·경제적 폐단, 조선을 배제한 명·일간 진행된 강화교섭, 조명관계에 의한 조선의 정치적 변동, 전후

28) 홍성복, 「西山 淸虛大師」, 『군사』 11, 1985; 양은용, 「임진왜란 이후 佛敎義僧軍의 동향 : 全州 松廣寺의 開創碑 및 新出 腹藏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 2003; 박재광, 「임진왜란 초기 의승군의 활동과 사명당」, 『동국사학』 42, 2006; 손승철, 「四溟大師와 韓日關係」, 『강원사학』 23, 2008; 김승호, 「四溟大師 전승에 나타난 인물기능과 현재성」, 『불교학보』 56, 2010; 이봉춘, 「惟政의 구국활동과 교단내의 평가」, 『불교학보』 56, 2010; 이철현, 「사명당 유정에 대한 밀양 유림의 평가와 추모사업」, 『한국불교학』 59, 2011; 김상영, 「청허 휴정의 沙門像과 표충사 제향의 의의」, 『선학』 33, 2012; 김상일, 「青梅 印悟禪師의 생애와 임진왜란 관련 시에 대하여」, 『불교학보』 62, 2012; 황인규, 「임진왜란 의승군의 봉기와 전란의 충격」, 『한국불교사연구』 2, 2013; 김순남, 「16세기 조선의 피역승의 증가와 승도 조직의 재건」, 『조선시대사학보』 66, 2013; 정출현, 「사명당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과 그 시대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45, 2014; 고영섭,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72, 2014; 손병욱, 「서산휴정의 불교사상과 救世를 위한 호국사상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20, 2014; 이종수, 「왜란과 호란 이후 불교계의 변동과 추이」, 『한국불교사연구』 8, 2015.

재조지은으로 인한 조명, 조청관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명의 파병과 참전에 대한 연구는 시대상황, 파병배경과 논쟁, 조선의 파병요구와 명의 파병의도, 파병된 명군에 대한 조선의 기록과 인식, 철군논쟁, 명군의 참전이 조선사회에 미친 사회·군사·경제·문화적 영향, 전쟁 중 명의 내정간섭, 군량지원과 조선의 군수체계, 참전 명나라 장수의 유적과 유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²⁹⁾

義興三軍府, 三軍鎮撫所, 五衛鎮撫所, 五衛都總府 등으로 변화된 조선의 중앙 군령기관은 세조대 오위체제로 정비되면서 실질적인 최고 관부였다. 다양한 병종으로 편제된 오위는 지방의 병력을 분담, 관할하였다. 중앙군의 지방분담은 자연스럽게 전국을 鎭管으로 편성하여 방위체제를 갖추었다. 진관체제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력을 집중시켜 거점중심의 방어를 우선으로 하는 制勝方略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전쟁과정에 지휘명령체계와 군수체계에 대한 전면 개정을 절감했다. 군제와 지휘체계에 대한 연구는 지방군과 중앙군의

29) 유구성, 「壬亂時 明兵의 來援考」, 『史叢』 20, 1976; 조원래, 「명군의 출병과 壬亂戰局의 추이」, 『한국사론』 22, 1992; 방상현, 「임진전쟁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명조의 조선출병 성격을 중심으로」, 『박영석교수화갑논총』, 1992; 장학근, 「임난초기 明軍來援과 軍량논의」, 『임난순군활동연구논총』, 1993; 김용호, 「중국의 對韓半島 軍事介入에 관한 역사적 고찰」, 『군사』 27, 1993; 이계황, 「임란 후 明軍의 留撤을 둘러싼 조선과 明」, 『東西文化論叢』 2, 1997;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명군참전의 사회문화적 영향」, 『군사』 35, 1997; 최효식 「명의 임진왜란 참여 동기와 그 실체」, 『백산학보』 53, 1999;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明의 內政干涉과 직할통치론」,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0; 「임진왜란과 명나라 군대」, 『역사비평』 54, 2001; 유보전, 「壬辰倭亂時 明 派兵의 實相에 대한 一考: 그 動機와 時機를 中心으로」, 『한국사학보』 14, 2003; 김경태, 「임진왜란 후 명 주둔군 문제와 조선의 대응」, 『동방학지』 147, 2009; 한명기, 「〈孤臺日錄〉에 나타난 明軍의 모습」, 『남명학』 15, 2010; 유보전, 「大義名分論과 壬辰倭亂: 明왕조의 시각으로 본 임진왜란」, 『사회과학』 51(4), 2012; 박현규,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로 건너간 조선 유민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김경록, 「선조대 홍순언의 외교활동과 조명관계」, 『명청사연구』 41, 2014;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명군지휘부의 조선에 대한 요구와 간섭」, 『한국학연구』 35, 2015; 박현규, 「임진왜란 명 장수 吳惟忠의 한반도 소재 문물 고찰」, 『석당논총』 64, 2016.

군제와 지휘체계에 집중되었으며, 훈련도감 설치와 운영, 지역별 鎭과 兵種에 대한 연구, 무과운영을 통한 충원 및 신분상 특징, 군제변화와 지방병영 연구 등이다.³⁰⁾ 군제변화와 함께 전쟁을 통해 전법과 전술의 변화도 진행되었는데, 진관체제에서 변화되어 조선의 방위전법이었던 制勝方略戰法の 효율성에 대한 연구, 척계광의 전법이 소개되어 조선에서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 각종 병법서의 간행과 의미, 무예서의 발전, 조·일간 전술의 비교연구, 전쟁 당시 조명연합군의 기병작전, 둔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연구, 수군의 철쇄운영, 무기와 전술변화, 재정운영의 핵심사항이었던 염전, 무기체계변화에 따른 서적간행, 전쟁수행을 위한 지도·지리서 활용분석, 거북선의 구조연구 등이었다.³¹⁾

30) 심승구, 「임진왜란중 무과급제자의 신분과 특성 -1594년(선조 27)의 별시무과방목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2, 1996; 「임진왜란중 武科의 운영실태와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1, 1997; 이강길, 「조선후기의 忠淸兵營」, 『역사와실학』 27, 2004; 서태원, 「조선후기 광주의 군사지휘체계 변천」, 『실학사상연구』 29, 2006; 변동명, 「조선시대 突山島 防踏鎭의 설치와 그 구조」, 『한국사학보』 27, 2007; 서태원, 「임진왜란 후 지방군 지휘체계의 개편 : 營將·巡營中軍의 설치와 관련하여」, 『인문학연구』 12, 2009; 김종수, 「임진왜란 전후 중앙군제의 변화」, 『군사』 84, 2012; 김성우, 「임진왜란 초기 制勝方略戰法の 작동 방식과 상주 북천전투」, 『한국사연구』 163, 2013; 유동호,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황만기, 「鄭塚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 25, 2014; 김순남, 「16세기 조선 지방군제의 동요 : 牙兵의 형성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73, 2015; 김종수, 「훈련도감 설치 및 운영의 동아시아적 특성」, 『장서각』 33, 2015; 나영훈, 「선조대 후반(1592~1608) 都監의 운영을 통해 본 都監制의 역할과 존속 배경」, 『군사』 94, 2015; 노영구, 「중앙 軍營과 지방군을 통해 본 조선 후기 국방체제의 변화 양상」, 『장서각』 33, 2015; 송수환, 「왜란 직후의 울산 소모군 -1609년 울산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2015.

31) 이장희, 「임진왜란중 屯田經營에 대하여」, 『동양학』 26, 1996; 송양섭, 「임진왜란기 국가의 둔전 설치와 경영」, 『한국사학보』 7, 1999; 노영구, 「임진왜란 이후 전법의 추이와 무예서의 간행」, 『한국문화』 27, 2001; 이육, 「임진왜란 중 염정의 전개와 성격」, 『실학사상연구』 24, 2002; 김산, 공미애, 「임진왜란 전후의 명의 무예서들과 조선의 무예서들과의 기술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체육사학회지』 8권 2호, 2003; 김산, 김주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권법에 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8권 1호, 2003; 서인한, 「朝·明 연합군 騎兵작

선제적인 공격의 일본군에 대응한 조선군은 초전부터 일본군의 조총에 의해 연이은 패전을 경험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의 조총, 조선군의 천자총통, 지자총통 등 화포, 명군의 불랑기, 대장군포 등 중화기는 전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총이 조선에 전래된 과정, 조총생산을 위한 조선의 노력, 조총의 동양 삼국의 비교분석, 전후 조총을 비롯한 화약무기의 군수산업에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³²⁾ 조선의 임진왜란 이전 군수체계, 전쟁 중 조달체계, 군수물자 조달 및 생산을 위한 조선의 정책적 노력, 개별 무기의 성능과 특징에 대한 기초연구, 조총생산과 전력화 등 군수물자 조달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임진왜란은 조선 건국이후 처음으로 외국군대의 국내진입이란 상황을

전의 전개양상, 『군사』 51, 2004; 이내주, 「한국의 전통무기와 전술변화(1) : 임진왜란 이전」, 『국방과 기술』 309, 2004; 「한국의 전통무기와 전술변화(2) : 임진왜란 이후」, 『국방과 기술』 310, 2004;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군사』 51, 2004; 김문자, 「정보·통신과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 22, 2005; 차철욱, 「임진왜란시기 日本 水軍의 활동과 관련자료의 검토」, 『한국민족문화』 27, 2006; 최형국, 「朝鮮時代 騎兵의 戰術的 運用과 馬上武藝의 變化 -壬辰倭亂期를 中心으로-」, 『실학사상연구』 38, 2009; 홍순구, 「임진왜란 거북선 蓋板의 구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3), 2011; 노영구, 「16~17세기 近世 일본의 戰術과 조선과의 비교」, 『군사』 84, 2012; 허대영, 「임진왜란 전후 조선의 전술 변화와 군사훈련의 전문화」, 『한국사론』 58, 2012; 홍을표, 「조선후기 척계광의 戰法에 대한 논의」, 『한일관계사연구』 44, 2013; 김성우, 「임진왜란 초기 制勝方略戰法의 작동 방식과 상주 북천전투」, 『한국사연구』 163, 2013; 허태구, 「임진왜란과 지도·지리지의 군사적 활용」, 『사학연구』 110, 2014; 홍순구, 「임진왜란 거북선의 선형과 내부구조」, 『조형미디어학』 17권 3호, 2014; 송은일,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우수영의 철쇄설치」, 『호남문화연구』 57, 2015.

32) 유승주, 「조선후기 군수광공업의 발전-조총 문제를 중심으로-」, 『사학지』 3, 1969; 박재광, 「임진왜란기 조선군의 화약병기에 대한 일고찰」, 『군사』 30, 1995; 박재광, 「임진왜란기 朝·明·日 삼국의 무기체계와 교류-火藥兵器를 중심으로-」, 『군사』 51, 2004; 노성환, 「조총을 통해서 본 한일관계」, 『동북아 문화연구』 20, 2009; 오경후, 「火車의 製造와 壬亂 情勢의 變化」, 『공자학』 21, 2011; 노영구, 「16~17세기 鳥銃의 도입과 조선의 軍事的 變化」, 『한국문화』 58, 2012; 이재성, 백승희, 「임진왜란기 화약 무기의 제작기술 검토: 성분분석 및 미세조직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화』 82, 2013.

초래하여 내정간섭과 명군의 군수지원체계를 담당하였다. 군사지휘체계 및 파병된 명군으로 인한 폐단은 둘째로 치더라도 일본과의 강화교섭에 조선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조선은 강화교섭을 반대했다. 전쟁수행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명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된 강화론은 조선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한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강화교섭이 진행되면서 수차례 결렬과 재개를 거듭하였으며, 파병된 명 장수와 관원의 월권적인 태도와 직할통치론이 제기되는 등 조선을 구원한다는 명의 명분과 배치되었다. 참전한 일본군 지휘관들은 전황의 불리함이 대두하자 강화교섭을 활용하여 전황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강화교섭의 연구는 전투진행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 군량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강화교섭의 발생·전개·결렬·재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 강화에 대한 일본의 조건 및 입장, 전쟁이후 강화교섭의 과정, 조·명간 갈등구조, 인물중심의 연구, 명분과 실리의 측면 등에 관하여 진행되었다.³³⁾ 명·일간 진행된 강화교섭은 조명연합군의 전쟁수행에 큰 영향을

33) 홍성덕, 「丁酉再亂 이후 明日 정전협상과 조명관계」, 『全北史學』 18, 1995; 김영작, 「임진왜란 전후의 한일교섭사를 통해서 본 전쟁과 평화의 변증법-사명대사의 대일교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권 1호, 1999; 이완범,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 일본의 조선분할요구와 명의 對조선 중주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정신문화연구』 25(4), 2002; 김문자, 「임진왜란기 일·명 강화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 : 사명당(松雲大師)·加藤清正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8(3), 2005; 김경태,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한국사연구』 138, 2007; 「임진왜란 후 강화교섭기 국서문제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36, 2009; 김문자, 「임진왜란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清正 : 조선왕자의 送還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허남린, 「명분과 실리의 정치역학 : 임진왜란 시기의 강화논의를 둘러싼 유성룡의 역할과 경쟁」, 『안동학』 11, 2012; 김경태,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동향-戰功의 위기와 講和交渉으로의 가능성」, 『대동문화연구』 77, 2012; 이계황, 「임진왜란과 강화교섭 : 쓰시마번과 고니시 유키나가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34, 2013; 김경태, 「임진전쟁 강화교섭 전반기(1593.6~1594.12), 조선과 명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166, 2014; 「임진전쟁 초기의 군량 문제와 강화교섭 논의」, 『역사와 담론』 70, 2014;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임진전쟁기 강화교섭의 결렬 원인에 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87, 2014; 「임진전쟁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강화조건 연구」, 『조선시대사학

주어 승패를 좌우하기도 했으며, 일본군이 일부나마 병력을 보존하여 퇴각하는 조건을 제공했다. 강화교섭에 대한 조선, 일본, 명의 논리는 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명의 압력으로 조선의 강화교섭 논리는 철저히 배제된 점과 일본이 명일교섭 성과를 앞세워 조선을 압박하였던 점 등이 향후 보다 명확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결국 강화교섭은 임진왜란의 종식이란 미봉책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국제전략으로서 의미는 한계가 있었다.

강화교섭과 달리 전후 국교재개 교섭은 조선이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고, 피로인의 쇠퇴를 명분으로 추진했다. 임진왜란의 처참했던 경험으로 국교재개에 대해 조선은 처음 부정적이었지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고 일본의 재침을 방지한다는 당면목표로 진행되었다. 국교재개에 관한 연구는 재개과정을 정리하고, 국교재개를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국교재개를 위한 통신사행 등이 연구되었다.³⁴⁾ 임진왜란 이후 국교재개는 전쟁이란 측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전후 국가안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며, 한국 현대사에서 한일협정과 비교분석할 필요도 있다.

임진왜란은 전쟁사의 측면으로만 분석될 수는 없다.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고, 조선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붕괴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으로 학계에서 사회변화, 향촌사회의 변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회변화 연구는 민간인피해를 분석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주로 지역별, 신분별 동향과 사회변동을

보』68, 2014; 「임진전쟁기 경주 안강 전투와 강화교섭 국면의 변동」, 『한국사학보』62, 2016.

34) 손승철, 「임진왜란 후 조선통신사는 왜 파견되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11, 2003; 이계황, 「임진왜란과 동아시아-국교 재개 교섭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역사, 두 가지 생각, 한일역사의 쟁점』, 경인문화사, 2010; 방기철, 「임진왜란 후 조·일간 국교재개 과정 연구」, 『군사』84, 2012; 허경진,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 『연민학지』24, 2015.

정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향리층과 사족, 전쟁으로 인한 유언비어와 사회혼란, 일본군의 점령에 따른 민의 동향, 수시로 발생한 반란이 가지는 의미, 전쟁경험의 문학적 표현, 국가재정이 파탄되고 신분질서가 붕괴는 상황에서 조선정부의 대응(치안유지, 旌表, 教化 등), 유교적 사회질서의 붕괴가 가져온 영향 등 다양하였다.³⁵⁾

- 35) 이승녕, 「임진왜란과 민간인피해에 대하여 -〈동국신속삼강행실〉의 피해보고서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보』 17, 1962; 이현중, 「임진왜란과 서울」, 『향토서울』 18, 1963; 이장희, 「壬辰倭亂中 民間叛亂에 대하여」, 『郷土서울』 32, 1968; 최근목, 「임진왜란때의 호서지방의 민간반란」, 『백제연구』 5, 1974; 최영희, 『壬辰倭亂中の 社會動態』, 한국연구원, 1975; 황하현, 「임진왜란과 국가재정의 파탄」, 『경제연구』 1, 1979; 정진영, 「壬亂前後 尙州地方士族의 動向」, 『民族文化論叢』 8, 1987; 이장희, 「임란전후 한국의 사회동태」, 『아시아문화』 8, 1992; 박주, 「임진왜란과 旌表」, 『한국전통문화연구』 8, 1993;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상인층의 동향과 사족층의 대응」, 『한국사학보』 8, 2000; 차인배, 「임진왜란기 도성 내 포도청의 치안 활동」, 『동국사학』 40, 2004; 류해춘, 「임진왜란의 체험과 가사문학의 변모」, 『우리문화연구』 17, 2004; 이윤선, 「강강술래의 역사와 놀이 구성에 관한 고찰」, 『한국민속학』 40, 2004; 장동표, 「임진왜란 전후 밀양 재지사족의 동향」, 『역사와현실』 55, 2005; 김강식, 「壬辰倭亂 前後 釜山地域의 社會變化」, 『항도부산』 22, 2006; 김강식,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백성들은 왜 조선 왕자를 일본군에 넘겼나?」, 『내일을 여는 역사』 29, 2007; 권기중, 「임진왜란 시기 향리층의 동향과 戰後의 향리사회 :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64, 2007; 허남린, 「규율과 질서 : 임진왜란과 유교적 사회질서」, 『국학연구』 14, 2009;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被虜人 沙器匠」, 『한국민족문화』 33, 2009;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26, 2010; 김만호, 「임진왜란기 일본군의 함경도 점령과 지역민의 동향」, 『역사학연구』 38, 2010; 정일영, 「임진왜란 이후 “教化”의 양상 -광해군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4, 2010; 송기태, 「풍물굿의 군사적 의미화 연구 -전남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36, 2010; 송은일, 「임란 전후 보성·장흥지방 재지사족의 사회적 기반: 임란 당시 전라좌의병 지도층과 그 가문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0, 2011; 김현영,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란 전후 조선사회의 변화」,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이훈상, 「어느 지방 이서의 임진왜란 증언과 전승 -경상도 인동의 향리 劉席珍과 그의 임진왜란 일기-」, 『영남학』 21, 2012; 권순강, 이호열, 「임진왜란이후 밀양도호부 읍성의 공간구조 변화」, 『건축역사연구』 22(2), 2013; 김일환, 「임진왜란기 內浦지역과 민의 동향」, 『역사와실학』 52, 2013;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창녕 지역의 대응과 후대의 기억」, 『한국사상사학』 46, 2014; 김만호, 「임진왜란 시기의 유언비어와 사회상의 변화」, 『역사학연구』 54, 2014; 유현재, 「壬亂 이후 鑄錢論과 倭錢의 수입」, 『동국

사회분야 연구의 한 영역이 여성분야이다. 전쟁피해를 많이 입은 여성들이 전쟁을 어떻게 겪었으며,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계의 연구는 역사학계에서 남치된 여성들의 일본생활 및 신앙에 대해, 침략군 일본장수와 연관된 기생들의 행적 등을 분석하는 반면, 국문학계는 여성들이 전쟁경험을 통해 남긴 기록을 분석하고, 논개와 계월향 등 義妓를 기억하는 서술에 주목하였다.³⁶⁾

3. 임진왜란 이후(결과,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경향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는 전쟁당시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승전과 패전은 조선의 입장에서 전후 국가통치 및 전후 복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전국적으로 치열한 전투로 인한 피해화, 무너진 사회질서, 피난길에 오른 왕실 등은 국가통치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조선은 항왜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겼다.

降倭將 金忠善으로 대표되는 항왜는 조선에 대한 귀화를 의미하는

사학』56, 2014; 윤혜민, 「조선 후기 石星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70, 2014; 권기중, 「용만 권기를 통해 본 임란 이후 재지 사족층의 동향」, 『한성사학』30, 2015; 류성룡, 「임진왜란 전후 영남지방 건축의 전개」, 『한국학논집』58, 2015.

36) 김옥희, 「임란 때 남치된 조선여인들의 일본에서의 순교와 신앙생활」, 『사학연구』36, 1983; 정동주, 「진주성 전투와 논개」, 『남명학연구』7, 1997; 장미경, 「戰爭詩에 나타난 여성의 兩價性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詩材 한시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1, 2005; 정지영,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 : 조선시대 '義妓'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한국여성학』23(3), 2007; 이동월, 「"계월향 이야기"와 "죽음"의 변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6, 2008; 정출현, 「임진왜란의 상처와 여성의 죽음에 대한 기억 -동래부의 金蟾과 愛香, 그리고 용궁현의 두 婦女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1, 2010; 정지영,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과 새로운 '忠'의 등장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국학연구』18, 2011.

것으로 침략군이 조선의 높은 문물을 경외하여 귀화하였다는 점이 중요했다. 일본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성과가 다소 미흡한 반면 한국학계는 전쟁결과로 항왜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학계의 항왜연구는 항왜의 존재양상과 정착과정을 분석하고, 조선에서 항왜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이들이 인조반정 이후 이괄의 난에 활용되었던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항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조총기술 등에 집중했다.³⁷⁾

임진왜란은 노예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군은 정책적으로 피로인 납치에 치중했다. 전국적 규모로 조선인이 피로인으로 납치되었다는 점은 전쟁 당시 조선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전쟁의 목적 중 하나이자, 전쟁이후 조일 양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피로인문제는 학계의 주요 관심주제가 되었다. 한국학계의 연구는 피로인의 쇠환을 위한 쇠환사행과 한계, 쇠환사행 기록과 문학, 피로인 출신과 신분, 여성피로인의 생활과 신앙, 조선의 피로인 인식, 李參주으로 대표되는 조선도공의 생활과 역할, 피로인 인물연구, 일본에 잔류한 피로인의 정체성, 피로인을 통한 정보교류, 피로인 체험과 기록, 후대의 피로인에 대한 기억과 서사 등이었으며, 문학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³⁸⁾

37) 이장희, 「임란시 투항왜병」, 『한국사연구』 6, 1971; 김문자, 「임란시 항왜문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한문중, 「임진왜란시의 降倭將 金忠善과 <慕夏堂文集>」, 『한일관계사연구』 24, 2006;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降倭의 留置와 활용」, 『역사와 세계』 32, 2007; 최장근, 「金忠善에 대한 정밀 탐구 : 관직으로 보는 沙也可의 위상」, 『일어일문학』 52, 2011; 민덕기, 「임진왜란기 ‘附倭’ 정보와 조선 조정의 대응 : ‘附賊’ 용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2014; 양홍숙, 「조선후기 降倭의 존재 양상과 정착-대구시 우록리 김충선의 후손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22, 2016.

38) 김옥희, 「임란 때 납치된 조선여인들의 일본에서의 순교와 신앙생활」, 『사학연구』 36, 1983; 이원순, 「왜란과 朝鮮俘虜」, 『조선시대 史論集-안과 밖의 만남-』, 느티나무, 1993;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이민호, 「임진왜란후 첫번째 회담겸 쇠환사의 파견」, 『동서사학』 1, 1995; 정광, 「일본 薩摩 苗代川 정착한 임진왜란 한국피노인의 모국어교육」, 『이중언어학』 4, 1988;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 생활-왜 납치되었고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와 담론』 36, 2003; 김문자, 「16~17세기 朝日 관계에 있어서 被虜人 귀환」, 『상명사학』 8·9, 2003; 장미경, 「임란 피로자의 포로 체험 한시연구 -정희득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0, 2003; 김문자, 「임

한국학계와 일본학계는 피로인의 규모에 대한 추정치에 큰 차이를 보인다. 2~3만의 일본학계 추정치에 비하여 한국학계는 10~40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차이는 피로인의 범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결과로 전투 중 납치, 실제 전투지역에 사역된 인원, 노동력 보충을 위한 일본으로 납치, 기술자와 각종 직업인의 납치, 일본군에 협조한 인원, 노예매매 목적의 무작위 납치 등 피로인을 납치하는 목적이 다양하였기 때문이다. 피로인의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통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납치이후 행적과 쇠환이후 조선에서 생활에 대해 보다 천착한 연구가 필요할 필요가 있다.

피로인은 전후 조일관계의 재개에 명분으로 작용하여 전후 대마도

진 정유재란기의 조선 피로인 문제, 『중앙사론』 19, 2004;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과 정보의 교류」, 『사학연구』 74, 2004;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의 귀환과 잔류로의 길」, 『한일관계사연구』 20, 2004; 민덕기, 「임진왜란 중의 납치된 조선인문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정영문, 「回答兼刷還使의 使行文學研究」, 『온지논총』 12, 2005; 민덕기, 「임진왜란기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 잔류 배경과 그들의 정체성 인식」, 『한국사연구』 140, 2008; 장경남, 「임진왜란기 포로 체형 문학과 가족애」, 『한국문화연구』 14, 2008; 노성환, 「일본 사가시에 남은 임진과 정유왜란」, 『일본어교육』 46, 2008; 「나가사키현 미가와치의 조선도공에 관한 일고찰」, 『일본어교육』 49, 2009; 「일본 사가현의 임란포로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42, 2009; 「임란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동식물」, 『일본어교육』 48, 2009; 노성환, 「일본 사가의 조선포로 흥호연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73권 2호, 2010; 이미숙, 「조선사기장 李參平의 피납과정과 활동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26, 2010; 노성환, 「일본에 남은 임진왜란」, 제이앤씨, 2011; 김정신,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에 대한 기억과 전승 - 「節義」에 대한 顯彰과 排除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40, 2012; 유채연, 「임진왜란기 피로인들과 그들의 기록 : 강항·정희득·노인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3, 2012; 이미숙, 「16세기 被虜沙器匠의 출신지 연구」, 『인문과학연구』 33, 2012; 장경남, 「임진왜란 포로 기억의 서사화와 그 의미」, 『지역과 역사』 31, 2012; 손승철, 「조선통신사의 피로인 쇠환과 그 한계」, 『전북사학』 42, 2013;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 41, 2013; 구지현, 「壬辰倭亂 被虜人에 대한 回答兼刷還使의 인식 변화」, 『동학어문학』 63, 2014; 노성환, 「일본 구마모토의 신이 된 조선인 김환」, 『일본인어문학』 27, 2014; 「조선인 임란포로 오다 유리야에 관한 일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40, 2014; 「임란포로, 일본의 신이 되었다」, 민속원, 2014; 정은영, 「회담겸쇄환사의 일본정보 탐색 연구」, 『겨레어문학』 54, 2015.

주도로 진행된 쇠환이 조일정부간 쇠환사, 통신사 등 공식 사행에 의해 진행되어 약 6,000여 명이 돌아왔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기존 연구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피로인의 정치·외교·경제적 파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쇠환과 관련하여 피로인 가운데 쇠환을 거절한 인원에 대한 분석은 조선사회의 신분적, 경제적 모순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측 사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한다.

전쟁이 종료되었지만, 한반도의 남부해안지역에 일본의 성, 즉 왜성이 남아있다. 명군의 참전과 조선군의 공세에 밀려 일본군은 한반도의 남부에서 왜성을 축성하고 장기전에 들어갔다. 왜성은 임진왜란의 치열한 최전선이자 일본군의 본토에서 병력과 물자공급의 교두보였다. 조명연합군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왜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龜浦倭城, 機張竹城里倭城, 馬山倭城, 西生浦倭城, 蔚山倭城, 熊川安骨倭城, 熊川倭城 등 현존하는 왜성에 대한 조사작업을 통해 1961년 『慶南의 倭城址』가 발간되면서 한국학계의 왜성연구는 시작되었다.³⁹⁾ 왜성은 산성 중심의 조선 성곽체계에 미친 영향, 조선성과 왜성을 상호 비교한 연구, 왜성의 축성방식, 왜성과 전황 등이 연구되었으며, 왜성연구와 함께 조선의 성곽에 대한 연구도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어 진주성, 부산진성, 각지의 읍성 등의 규모와 기능에 대해 분석되었다.⁴⁰⁾

39)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편, 『慶南의 倭城址』, 1961.

40) 유재춘, 「임진왜란시 일본군의 조선 성곽 이용에 대하여 -철원 성산성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4, 2003; 장필기, 「임진왜란 직후 축성역 동원체계의 한 형태 -금오산성 수성장 정방준의 축성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5, 2004; 김현규, 「임진왜란 이후 성곽도시의 대안으로서 정비된 산성도시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1(11), 2005; 차용걸, 「임진왜란 이후 한국 축성기술의 변화과정」, 『충북사학』 16, 2006; 조원래, 「정유재란과 順天倭城論 재검토」, 『문화사학』 27, 2007; 이형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기 왜성 축조방법에 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8권 1호, 2009; 나동욱, 「임진·정유재란 전후의 조선성과 일본성의 상호이용에 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3, 2009; 「구포왜성과 그 축조수법」, 『박물관연구』 24, 2013; 「부산왜성에 대한 고찰」, 『박물관연구논집』 19, 2013; 김준형, 「조선시대 진주성의 규모와 모양의 변화」, 『역사와 경계』 86, 2013; 「조선시대 진주성의 기능과 성내 시설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65, 2013; 이

한국학계의 임진왜란 연구에서 인물연구는 큰 흐름으로 지속되었다. 7년 동안 전국토를 전장터로 몰아갔던 전쟁이었기에 관련 인물이 많았기 때문이며, 인물중심의 분석을 통해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에 참전한 무관, 의병, 정치인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의 사대부, 피로되었던 인물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이루어졌다.⁴¹⁾ 임진왜란의 인물연구는 조선의 무관과 의병장 중심 연구가 주류를

재수, 「永川邑城과 임진왜란」, 『역사교육논집』 52, 2014; 심봉근, 「釜山浦와 釜山鎭城의 공간적 위치분석」, 『문물연구』 25, 2014; 김원규, 「합포병영성과 마산」, 『가라문화』 27, 2015; 유재춘, 「임진왜란 당시 한강방어론과 방어시설 구축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47, 2015.

- 41) 이장희, 『郭再祐研究』, 양영각, 1983; 편집부, 『鄭起龍』, 『군사』 10, 1985; 정찬주, 『郭再祐』, 『군사』 11, 1985; 이병태, 「호국 의병의 귀감 김천일」, 『군사』 14, 1987; 한명기, 「柳夢寅의 經世論 연구 -임진왜란 이후 사회경제 재건의 한 방향-」, 『한국학보』 18권 2호, 1992; 이상필, 「임란시 재조 남명 문인의 활동 -약포 동강 한강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 1992; 김호중,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학통」, 『역사교육논집』 31, 2003; 김호중, 「서애 류성룡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책」, 『대구사학』 78, 2005; 류주희, 「임진왜란을 전후한 尹卓然의 활동 -〈北關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28, 2005; 김인규, 「重峰 趙憲 개혁사상의 실학적 특성」, 『동양철학연구』 41, 2005; 이양희, 「오리 이원익의 임진왜란기 군사활동」, 『한국인물사연구』 4, 2005; 김익재, 「來庵 정인홍의 伏誅에 대한 정치적 측면의 일고찰」, 『한문학보』 15, 2006; 정역기, 「白沙 李恒福의 외교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8, 2007; 하우봉, 「강항, <간양록>」, 『한국사 시민강좌』 42, 2008;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 『군사』 76, 2010; 이상식, 「망암선생의 忠義 정신」, 『공자학』 21, 2011; 나경수, 「김덕령의 역설적 삶과 의의」, 『남도민속연구』 22, 2011; 김일환, 「임란기 西峒 柳根의 仕宦과 지방관활동」, 『한국인물사연구』 15, 2011; 우인수, 「조선 선조대 남북 분당과 내암 정인홍」, 『역사와 경계』 81, 2011; 이숙경, 「조선 선조대 柳根의 대외관계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15, 2011; 오인택, 「조선후기 ‘忠烈公 宋象賢 敍事’의 사회문화적 성격」, 『역사와 세계』 41, 2011; 김우진, 「月沙 李廷龜의 對明 외교활동 : 선조와 광해군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1, 2012; 김영나, 「松菴 金沔과 고령 지역의 의병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64, 2012; 김학수, 「조선 후기 사림계의 金誠一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이연숙, 「梧陰 尹斗壽의 정치활동과 임진왜란」, 『한국인물사연구』 17, 2012; 김정운, 「鄭琢의 <龍蛇日記>와 倭亂 극복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63, 2012; 김문식, 「월정 윤근수의 생애와 활동」, 『사학지』 47, 2013; 오영교, 「임진왜란과 毅齋 金梯甲의 목민활동」,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김학수, 「金誠一의 임란 중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남명학연구』 41, 2014; 우인수, 「西厓

이루었으며, 정치인의 정치활동, 인물이 작성한 문집이나 기록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세론·활동·일본인식·국방책략·문학적 의미, 남명학파를 비롯한 학맥중심의 활약과 사상 등을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국문학, 일문학의 측면에서 해당 인물의 문학적 성과와 인식을 연구하고, 철학의 측면에서 인물의 철학과 사상을 규명했다.⁴²⁾ 이러한 인물연구에서 인물의 활약과 충의사상을 통해 국난극복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인물의 실질적인 행적과 의도를 향후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임진왜란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임진왜란의 경험을 표현한 문헌

柳成龍의 學問과 繼承; 남북 분당과 서예 류성룡,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2014; 조희상, 「忠壯公 鄭撥에 대한 再考察」, 『동방한문학』 60, 2014; 이왕무, 「完興君 李億祺의 삶과 임진왜란」, 『한국인물사연구』 24, 2015; 김정태, 「임진전쟁기 이정암의 활동과 연안성 전투: 피난민, 전쟁 영웅, '주화론자' 사이에서」, 『한국인물사연구』 24, 2015; 방기철, 「李德馨의 전쟁경험과 일본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78, 2015; 허권수, 「東溪 趙亨道の 생애와 그 시대」, 『영남학』 28, 2015; 박다현, 「〈孤臺日錄〉에 나타난 정경운의 인물평가」, 『역사교육논집』 59, 2016;

- 42) 유재춘, 「임진왜란과 충장공 한백록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1, 1996; 오석원, 「증봉 조현의 의리사상」, 『동양철학연구』 39, 2004; 장입문, 「論郭再祐 <春秋>大義精神」, 『동아인문학』 7, 2005; 이철성, 「李德馨의 임진왜란 중 외교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7, 2007; 김문준, 「한음 이덕형의 생애와 실천사상」, 『한국인물사연구』 7, 2007; 강민구, 「樂齋의 救國 抗爭과 講學 活動」, 『동방한문학』 34, 2008; 김경옥, 「수은 강항의 생애와 저술활동」, 『도서문화』 35, 2010; 방기철, 「임진왜란기 오희문의 전쟁체험과 일본인식」, 『아시아문화연구』 24, 2011; 맹영일, 「간이 최립의 화론 연구」, 『동양학』 50, 2011; 오종일, 「姜沆의 충절정신과 儒學의 對倭 傳授로 본 그 위상」, 『공자학』 22, 2012; 방기철, 「鄭慶雲의 전쟁 체험과 일본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68, 2013; 「錦溪 魯認의 전쟁체험과 일본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70, 2013; 「秋浦 黃愼의 대일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74, 2014; 진병용, 「杜師忠의 생애와 慕明齋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구사학』 119, 2015; 김혜정, 「권을 설화의 인물 형상화 양상과 전승적 특징」, 『돈암어문학』 28, 2015; 신두환, 「서예 유성룡의 상소문을 통해 본 소통의 미학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65, 2015; 허권수, 「白沙 李恒福의 전쟁경험과 일본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83, 2016; 최중호, 「西厓 柳成龍의 憂國詩 考察」, 『동아인문학』 34, 2016.

자료에 대한 해제, 간찰자료, 문헌목록집, 고소설에 표현된 임진왜란, 일본사료, 포로의 체험실기, 중군기록 등이 광범위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헌자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전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⁴³⁾

- 43) 김용기, 「임진왜란의 被擄人 쇄환관계 신자료 <해동기>考」, 『대구사학』 1, 1969; 김운우, 「감양 의병유사 정경운과 <고대일록>」, 『남명학연구』 2, 1992; 허권수, 「죽유오운에 대한 소고」, 『남명학연구』 2, 1992; 자료조사부, 「<고대일록>해제 및 자료 권지일(1)」, 『남명학연구』 2, 1992; 「<고대일록>해제 및 자료 권지2(1)」, 『남명학연구』 2, 1992; 「<고대일록> 권지2(2)」, 『남명학연구』 2, 1992; 이상필, 「임란 倡義人脈 소고 -<茅谿先生日記>를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17, 1995; 신용태, 오용식(역), 「임진왜란 중군기 -군의관인 일본 스님의 현장목격기-」, 『일본학』 14, 1995; 김운수, 「<송계실기>해제」, 『남명학연구』 7, 1997; 윤호진, 「<석천시집>해제」, 『남명학연구』 7, 1997; 강동욱, 「<唐谷實紀>해제」, 『남명학연구』 7, 1997; 이상필, 「<목재집>해제」, 『남명학연구』 7, 1997; 황의열, 「<승덕재집>해제」, 『남명학연구』 7, 1997; 강동엽, 「최척전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동악어문학』 38, 2001; 김동철, 「임진왜란 시기 碧蹄館戰鬪 관련 자료와 戰蹟顯彰에 대한 검토」, 『한국민족문화』 27, 2006; 박정자, 「<朝鮮物語>에 그려진 임진왜란」, 『일본학보』 66, 2006; 노영구, 「전쟁과 일상 -<孤臺日錄>을 통한 임진왜란 이해-」, 『역사와현실』 64, 2007; 정태섭, 「北關大捷 관련 사료의 재검토로 본 鄭文字 義兵軍의 人的構成」, 『명청사연구』 27, 2007; 김문자, 「壬辰倭亂期 일본사료연구 : 풍신수길의 조선침략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0, 2008; 이상훈, 「임진왜란 연구에서 간찰의 활용 -최경희 간찰을 통한 의병 연구의 보완과 사실 접근-」, 『고문서연구』 33, 2008; 김선희, 「포로 역투기를 통해 본 조선식인의 “일본”을 향한 시선」, 『사림』 34, 2009;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25, 2010; 최재호, 「戰爭實記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 : 壬亂 戰爭實記를 中心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46, 2010; 이선희, 「임진왜란 시기 咸陽 守守의 전란대처 : <孤臺日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 2010; 임유경, 「<金景瑞傳>연구 -문제적 인물의 영웅화 과정-」, 『동방한문학』 45, 2010; 설석규, 「鄭慶雲의 현실인식과 <孤臺日錄>의 성격」, 『남명학』 15, 2010; 김정호, 「史料를 통해 본 朝鮮被擄人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2011; 김미선, 「<看羊錄>의 여정에 따른 서술 방법」, 『도서문화』 38, 2011; 김미선,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의 동아시아 인식」, 『한문학보』 27, 2012; 신병주, 「16세기 일기 자료 <鎖尾錄>연구 -저자 吳希文의 피난기 생활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0, 2012; 장경남, 「國文本 實記 <임진록>, <임주록>으로 본 修巖 柳軫」, 『퇴계학과 유교문화』 50, 2012; 임기영, 「<宣武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의 연구」, 『영남학』 21, 2012; 최재호, 「壬亂 戰爭實記에 나타난 慶尙右道 義兵의 意識과 視角」, 『남명학』 18, 2013; 송혁기, 「尹根壽의 敍事 散文 일고 -義兵 기억의 재구를 중심으로-」, 『한문

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라 표현될 정도로 의도적인 약탈을 목적하였더라도 전쟁을 통해 문화는 상호 교류되고 영향을 미쳤다. 문화교류, 문화교섭의 관점으로 임진왜란을 분석함으로써 전쟁사, 정치사, 외교사에서 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고, 국가별 경계를 허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교류는 무엇보다 인적 교류를 통해 사상, 기술, 문명 등이 교류되므로 인적교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구체적으로 서적유통, 도자기문화의 전파, 한·일간 문화적 대응, 한·중간 문화교류, 조선의 문화주의와 일본의 군사주의를 대비시켜 분석하기도 했다. 한·일간의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조·명간 학술논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⁴⁴⁾

학논집》36, 2013; 민덕기, 「임진왜란기 정경운의 <孤臺日錄>에서 보는 아래로부터의 聞見정보 : 實錄의 관련정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장경남, 「근대 초 고소설의 전변과 담론화 야상: 근대 초기 <임진록>의 전변 양상」, 『고소설연구』 36, 2013; 이재준, 송일기, 「일본 소재 16세기의 조선 內賜本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4권 4호, 2013; 전송희, 「동래성전투에 대한 기억서사와 표상-공간의 형성과정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3, 2013;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임진란문헌목록(I·II)』,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3; 김동석, 「敍事작품 속에 形象화된 임진왜란」, 『동방한문학』 60, 2014; 김정호, 「史料를 통해 본 朝鮮被虜人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1), 2015; 김미선, 「<看羊錄>의 표현적 특징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2015; 장경남,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전란 극복의 한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2015; 신승호, 「修巖 柳軫의 <임자록> 研究」, 『민족문화』 47, 2016.

- 44) 김태준, 「임진왜란과 한·일간의 문화적 대응」, 『아시아문화』 8, 1992; 조재곤, 「임진왜란시기 조선과 명의 문화교류」, 『아세아문화연구』 6, 2002;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壬辰倭亂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1, 2008; 구태훈, 「일본에서 꽃핀 조선의 도자기 문화 : 임진왜란 당시 납치된 조선인 도공 이야기」, 『역사비평』 85, 2008; 박성태, 「壬辰倭亂을 통해 본 文化 記憶」, 『인문과학』 41, 2008; 이경룡, 「임진왜란 전후 조선과 명조 학자들의 학술논변」, 『명청사연구』 30, 2008; 하우봉, 「임란 직후 조선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김학동, 「노구치 가쿠추(野口赫甫)의 『도자기와 검(陶と劍)』 론: 임진왜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한일 민족의 경계허물기」, 『Trans-Humanities』 3(1), 2010; 노성환, 「일본에 남은 임진왜란」, 『제이앤씨』, 2011; 박재광, 「임진왜란을 통한 조·명·일 삼국의 문화교류」, 『군사』 84, 2012; 허남인, 「임진왜란의 문명사적 맥락: 조선의 문화주의와 일본의 군

충격적이었던 임진왜란은 전쟁경험을 통해 다양한 역사기록과 문학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문학작품으로 반영되어 풍부한 역사문학, 전쟁문학으로 표현되었다.⁴⁵⁾ 전쟁직후 개별 사건과 인물이 점차 설화로 전이되어 전승되고, 한문소설, 국문소설의 소재가 되어 읽혀졌으며, 근현대로 접어들면서 시대상황에 따라 임진왜란이 문학작품으로 재창조, 재인식되었다. 학계의 관심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일의 문학작품까지 분석했다. 또한, 의병장의 행적을 그린 판화분석, 水操圖를 통한 수군의 통제방식 연구 등 임진왜란은 미술사의 측면에서 주요 연구주제가 된다.⁴⁶⁾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훌륭한 주상 전하의 큰 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명나라 황제를 감동시켜 천자의 군대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이라 평가했다.⁴⁷⁾ 즉, 임진왜란이 조선과 일본간의 단순 전쟁이 아닌 조선,

사주의, 『경남문화연구』 33, 2012; 김강식, 『문화교섭으로 본 임진왜란』, 선인, 2014.

45) 홍성욱, 「임진왜란」, 『새가정』, 1964; 이동근,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연구』 20, 1995; 박일용, 「홍순언 고사를 통해서 본 일화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5, 2001; 설성경, 최문정, 권혁래, 「임진왜란 관련 한일 역사서사문학의 성격 -<임진록>과 <太閤記>, <조선정벌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10권 1호, 2002; 박영호, 「낙재 서사원 사상과 문학 ;<낙재선생일기>考究」, 『동방한문학』 30, 2006; 장경남, 「壬·丙 兩亂과 17세기 小說史」, 『우리문화연구』 21, 2007; 황병익, 「壬亂期 부산지역 戰亂歌辭의 의미 고찰」, 『항도부산』 26, 2010; 최영호, 「임진왜란과 전쟁문학 -오다 마코토, <소설 임진왜란(民岩太閤記)>을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33, 2012; 전병철, 김지영, 「중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임진왜란의 한 단면 李浩白의 <抗日援朝1592>을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33, 2012; 김준배, 「朝鮮軍記物에 그려진 李舜臣像-근세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28, 2014; 신선희,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에 나타난 전통의 전유방식과 타자인식 -신채호와 이광수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1, 2015; 이기대, 「임진왜란 당시 이항복의 활동에 대한 문학적 형상과 변모의 양상」, 『어문론총』 63, 2015.

46) 유미나, 「임진왜란 의병장 趙憲(1544~1592)의 행적을 그린 <抗議新編>판화 고찰」, 『강좌 미술사』 35, 2010; 「조선후반기의 統制營 水軍操鍊圖 연구 :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병풍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81, 2014.

47) 신태영 외, 『판본비교 징비록』 논형, 2016. 20쪽.

명, 일본이 연관된 국제전쟁이었다고 인식하였다. 국제전쟁으로서 임진왜란은 전쟁의 규모, 피해, 전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환을 가져왔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조일 양국이 전쟁을 통해 상대국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중 전쟁인식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역사학 및 문학, 철학, 정치학적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⁴⁸⁾

- 48) 김양선, 「임진왜란 중군신부 세스페데스의 내한활동과 그 영향」, 『사학연구』 18, 1964; 지명관, 「임진왜란과 근대조선의 민족주의」, 『기독교사상』 23(8), 1979; 정원표, 「역사적 사건의 詩的 형상화 과정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관련된 漢詩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6, 1993; 정원표, 「임진왜란을 조명한 후대의 회고 한시」, 『한국한시연구』 1, 1993; 최관, 「일본 근세문학에 있어서 임진왜란과 毛谷村六助」, 『일본어문학』 3, 1997; 「일본문학에 나타난 임진왜란의 영향」, 『남명학연구』 7, 1997; 정장식, 「임진왜란전의 대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2, 1997; 「임진왜란후의 대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4, 1998; 박창기, 「임진왜란에 관한 일본 중군승의 戰記 연구」, 『일본어문학』 4, 1998; 김문자,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시각 변천」, 『역사비평』 46, 1999; 박창기, 「임진왜란 관련 加藤清正 군기 연구」, 『일어일본학연구』 35, 1999; 「17세기 日本 軍記物에 나타난 壬辰倭亂觀」, 『일본사상』 2, 2000; 강현모, 「김덕령 전승의 현대적 수용양상과 의미 -박종화의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19, 2000; 박창기, 「<조선군기대전>의 임진왜란 다시 쓰기와 <징비록>」, 『일본학보』 47, 2001; 조원래, 「임진왜란, '애국인민들의 조국방위전쟁」, 『내일을 여는 역사』 13, 2003; 최관,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학의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 조선군기물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61, 2004; 김시덕, 「<에혼타이코키(繪繪本太閤記)>의 임진왜란 기사 연구」, 『임진왜란 기사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61, 2004; 노영구, 「공신선정과 전쟁평가를 통한 임진왜란 기억의 형성」, 『역사와현실』 51, 2004; 강현모, 「김덕령 전승에 나타난 서사장르 간의 관계」, 『비교민속학』 28, 2005; 박화진, 「일본 그리스찬 시대 규슈지역에 대한 고찰」, 『역사와 경계』 54, 2005; 최관, 「근현대일본에서 임진왜란의 문학화」, 『일본학보』 68, 2006; 허태용, 「임진왜란의 경험과 고구려사 인식의 강화」, 『역사학보』 190, 2006; 김광옥, 「일본 에도시대 임진왜란 기록물에 대한 연구: 島津氏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7, 2006; 「근대 일본의 豊臣秀吉,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4, 2007; 박창기, 「戰爭과 文學 그리고 삶」, 『일본어문학』 35, 2007; 이규배, 「반일감정의 始原에 관한 試論의 고찰: 임진왜란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24, 2007; 최관,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가」, 『아시아문화연구』 15, 2008;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임진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선인, 2009; 정호훈, 「임진왜란과 17세기 조선 사회의 기억: 元豪의 戰功과 조선 사회의 褒獎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39, 2009; 이규배, 「조선시대 적대적 對日인식에 대한

참전한 서양 종군신부의 인식차원에서 시작되었던 전쟁인식은 점차 근대의 민족주의와 연관시켜 분석하였으며, 전쟁 당시와 이후의 문학 작품에서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주목했다. 또한, 전쟁이전 조선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전쟁이후 변화된 양상을 분석하는 경향, 종군했던 일본승려의 기록을 분석하고 일본의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변화를 분석하는 경향 등이 있었다.

역사학계는 전쟁이후 공신선정을 분석하여 조선의 임진왜란 기억과 인식을 분석하기도 했으며, 관련 인물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통해 조선과 현대 한국의 임진왜란 인식 및 기억을 분석했다. 처절한 전쟁경험과

一考 : 麗末鮮初 및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30, 2009; 정출현, 「임진왜란의 영웅을 기억하는 두 개의 방식 -사실의 기억, 또는 기억의 서사-」, 『한문학보』 21, 2009;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 유록>」, 『고소설연구』 29, 2010; 도진순, 「망각에 이르는 두가지 길: 일본 고시마와 한국 남해안의 전쟁 기억」, 『역사학보』 208, 2010; 지두환, 「조선 임진왜란 충신 열사에 대한 현장정책」, 『사학연구』 97, 2010; 김보한, 「중근세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김시덕, 「제주에 표착한 일본인 세류두우수는 누구인가 -윤행임 <석재고>를 통해 보는, 조선시대의 일본 임진왜란 담론 수용양상-」, 『일본학보』 86, 2011; 이규배, 「조선시대 동아시아 삼국의 濟州島 인식 :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38, 2011; 「조선시대 적대적 對日인식에 관한 고찰 : 임진왜란~조선시대 말기를 중심으로」, 『군사』 84, 2012; 김기봉, 「1592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문명사적 관점에서의 성찰」,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박찬기, 「<에혼조센군키(繪本朝鮮軍記)>의 연구」, 『일본어문학』 52, 2012;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 2012; 강창규, 「金應瑞를 기억하는 방식과 그 문학적 형상화」, 『용봉인문논총』 40, 2012; 박인호, 「임진왜란의 경험과 역사 정리 작업: 신석겸의 宣廟中興誌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근세 일본의 베스트셀러와 전쟁의 기억」, 학고재, 2012; 허남린, 『조선시대 속의 일본』, 경인문화사, 2013; 정해은, 「조선후기 宣祖에 대한 현장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6, 2013; 전지니, 「우상에 갇힌 민족연극의 구상 : 김태진의 <리순신 장군>(1948)에 대한 소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2013; 정길수, 「전쟁의 기억과 <임진록> -<임진록> “역사계열” 한문본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29, 2014; 표인주, 「임진왜란의 구술기억과 구술집단의 역사의식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8, 2015; 「임진왜란 서사기억의 발생적 원천과 기호적 층위 -전남 남해안 水軍의 전투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9, 2016.

이에 대한 인식은 전후 공신선정에 있어 국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향으로 전개되었으며, 향촌사회에서 전쟁영웅의 현창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의도에서 이루어진 임진왜란 평가로 전승되었다. 전쟁경험은 조선의 다양한 계층에게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전쟁이후까지 오랫동안 남고 전승되었다. 전쟁기억은 전쟁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역사전개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역사학뿐만 아니라 국문학계는 전쟁 당시와 전후 전쟁기록과 문학작품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조선의 임진왜란 기억 및 전승양상을 정리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한국이 가지는 반일감정의 始原으로 임진왜란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쟁인식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임진왜란이 가져온 양상과 인식에 대한 학계의 연구경향이 증폭되었다. 전쟁 당사국이었던 조선, 명, 일본이 당대에 임진왜란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중점 조명하고, 이러한 인식이 전후 역사기억으로 전승되었는가를 조선과 일본의 다양한 사료분석을 통해 논증하는 일련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사료에서 표현차이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한·중·일 삼국의 임진왜란 관련 사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 제기, 전쟁영웅을 기억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기억의 서사로 전승되는지 규명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학계에서 일본사료 및 후대 작품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였지만, 『다이코키(太閤記)』, 『에혼조센군기(繪本朝鮮軍記)』 등을 문헌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본이 임진왜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정리했다. 일본의 전쟁기억과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역사사건으로서 임진왜란은 현대 역사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임진왜란을 서술하는가에 따라 한·중·일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에 대한 현대적 의미가 반영된다. 역사전쟁

이라 표현될 정도로 한·중·일 삼국의 역사서술은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이 치열하게 충돌하였던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서술은 역사학계의 중요 연구분야가 되었다.⁴⁹⁾

동북공정과 청사공정으로 인한 한·중간 역사교과서 분석이 있었던 반면, 한·일간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우경화현상과 연관되어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국가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초·중·고등학교의 분석, 임진왜란이 해당되는 중·근세사를 집중분석하거나 극우경향의 후소사(扶桑社)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등이 성과를 거두었다. 역사학계의 교과서 분석은 한·중보다는 한·일에 보다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북한의 교과서를 분석하기도 했다.⁵⁰⁾

4. 중국과 일본의 연구경향

중국학계의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경향은 1950~60년대, 1970~80년대 이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50~60년대, 唇亡齒寒의 역사적 경험과 6·25전쟁 참전 등으로 抗倭援朝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가 축적

49) 이충호, 「일본 역사교과서 분석 -임진왜란에 대한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제23,24합집, 1999; 박영철, 「中國歷史教科書의 韓國史敘述」, 『역사교육』 84, 2002; 박수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근세사 서술과 역사인식 -후소사(扶桑社)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9, 2005; 홍성덕, 「일본 역사개설서 및 사전류 서술 내용 분석 : 임진왜란 및 통신사 서술내용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5, 2006; 박재광, 「임진왜란 :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30, 2008; 이재호, 「임진왜란에 대한 초등 교과용도서 분석 및 역사수업의 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2012; 오인택, 최연구, 김두규, 「한일 초등학교 사회과 '임진왜란' 수업 비교 : 국가주의적 관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32, 2012; 홍성구, 「임진왜란과 명의 재정 -교과서 서술과 통설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 58, 2016.

50) 김정현,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임진왜란 서술체제와 내용의 비교 분석 -중학교 <역사>와 고등중학교 <조선력사>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51, 2013.

되었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공국 조선을 구원하여 파병된 명군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명의 왜구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접근한 내용이였다. 특히,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항전하여 승리하였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⁵¹⁾ 전반적으로 전투의 승리, 조선과 명의 역사적 밀접함 등을 강조하여 학술적 정밀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1970~80년대 연구경향은 중국의 문화혁명 영향으로 한동안 학문적 공백기였으며, 80년대 이후에 임진왜란 관련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주목되는 연구는 대만의 역사학계이다. 李光濤로 대표되는 임진왜란 관련 연구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⁵²⁾ 대만삼군대학에서 중국 역대 전쟁사를 정리하면서 임진왜란에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성과를 분석했으며, 임진왜란의 자료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중국학계는 명군의 출병을 중심으로 전쟁사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일본의 전쟁 발발원인 및 종전협상을 관심있게 다루었다.⁵³⁾

51) 方詩銘, 「十六世紀李如松在朝鮮進行的抗日援朝鬥爭」, 『历史教学』, 1951-12; 柳樹人, 「“壬辰倭亂”和中朝人民的抗戰」, 『历史教学』, 1952-6; 「“壬辰倭亂”和中朝人民的抗戰(續)」, 『历史教学』, 1952-7; 陸成侯, 「豐臣秀吉之死與壬辰倭亂的結局」, 『新史學通訊』, 1956-9; 王裕羣, 「1592-1598年日本豐臣秀吉的侵略戰爭及其結局—兼對陸成侯先生“豐臣秀吉之死與壬辰倭亂的結局”—文作初步商討」, 『新史學通訊』, 1956-12; 李光壁, 『明代御倭戰爭』, 上海人民出版社, 1956; 周一良, 『明代援朝抗倭戰爭』, 中華書局, 1962.

52) 李光濤, 『朝鮮壬辰倭禍研究』, (臺灣)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專刊61, 1972

53) 李景溫, 『朝鮮壬辰卫国戰爭』, 商務印書館, 1980; 張萬鈞, 「明朝兩次出兵援朝抗日」, 『學術論壇』, 1981-6; 楊昭全, 「論明代援朝禦倭戰爭中的和議問題」, 『朝鮮研究文集』1, 1981; 司今, 「中朝抗倭戰爭中的露梁海戰」, 『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82-4; 台灣三軍大學編, 「中國歷代戰爭史」, 『軍事譯文出版社』, 1983; 彭秀樞, 「明代土家兵抗倭事迹概述」, 『求索』, 1984-2; 王家驊, 「略論豐臣秀吉侵略朝鮮的原因」, 『日本研究』, 1985-3; 孫與常, 「明萬历年間遼東人民的抗倭援朝鬥爭」, 『社會科學輯刊』, 1985-5; 王婆楞, 『歷代征倭文獻考』, (臺北)正中書局, 1986; 姜守鵬, 「明末遼東勢族」, 『社會科學戰線』, 1987-2; 陳祺, 「明代遼東馬市及其歷史影響」, 『東北師大學報』, 1987-1; 佟鋒, 「從努爾哈赤的經濟要求看明與後金之間的關係」, 『社會科學輯刊』, 1987-6; 楊昭全, 「論明代援朝禦倭戰

임진왜란에 대한 중국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임진왜란시 명에서 중시했던 요동지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요동의 경제, 군사시설, 이여송 등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도요토미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여 전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후금의 흥기와 명 멸망원인을 임진왜란 파병에서 찾는 연구, 군량수송문제 및 俞大猷, 李如松, 宋應昌, 陳璘 등 참전 주요인물을 집중 조명한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이순신 공적과 척계광의 병법, 임진왜란의 국제관계사적 접근 등이 이루어졌다.⁵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량과 수준에 있어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는데, 학위논문의 주제로 임진왜란이 주목을 받았던 점이 특징이다.⁵⁵⁾

爭的幾個問題》，『中朝關係史論文集』，1988；張慶洲，「抗倭援朝戰爭中的明日和談內幕」，『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9-3；王振芳，「唐五代海運勾沉」，『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9-4；趙連泰·左學德，「太閤檢地的歷史作用」，『世界歷史』，1989-6。

- 54) 姜守鵬，「明代遼東經濟」，『社會科學輯刊』，1990-3；林世慧，「略論明代遼東城鎮的興衰」，『社會科學戰線』，1990-4；盛巽昌，「李舜臣和朝鮮壬辰卫国戰爭」，『航海』，1990-4；蔡俊士，「戚繼光在浙江台州抗倭斗争述論」，『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1-2；宗惠玉，「李如松與援朝御倭戰爭」，『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2-2；周曉紅，「貢獻突出的抗倭援朝將領宋應昌」，『社會科學輯刊』，1992-6；韋旭昇，「萬曆壬辰之役所留下的中韓友誼佳話」，『歷史月刊』59，1992；張存武，「萬曆援朝抗倭之役的影響」，『歷史月刊』59，1992；宗惠玉·金榮國，「也論豐臣秀吉侵朝戰爭的原因」，『東疆學刊』，1993-4；王志遠，「明朝的援朝抗日戰爭」，『歷史教學』，1993-7；杜家驥，「抗倭援朝與明王朝的衰落」，『歷史月刊』62，1993；張吉昌，「俞大猷抗倭的策略思想」，『歷史教學問題』，1994-2；孫文良，「明代「援朝逐倭」探微」，『社會科學輯刊』，1994-3；金榮國·宗惠玉，「丰臣秀吉发动侵朝戰爭給日本帶來了什麼？」，『天池學刊』，1994；孫衛國，「陳璘與李舜臣」，『韓國學論文集』4，1995；朱亞非，「明代援朝戰爭和和議問題新探」，『中國史研究』66，1995；張士尊，「明末遼東軍食問題述論」，『山東師大學報(社會科學版)』，1996-2；閔立新，「簡述后金與明朝關係的逐步演變」，『滿族研究』，1997-1；蔣非非 外，「中韓關係史·古代卷」，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8；姚繼榮，「明代遼東馬市述論」，『遼寧師範大學學報』，1998-4；趙建民，「文祿·慶長之役與朝鮮文化的傳播」，『復旦學報(社會科學版)』，1998-9；徐祖白，「抗倭英雄錢泮」，『江蘇政協』，1999-4；薑龍範·劉子敏，『明代中朝關係史』，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1999；유보진，『壬辰倭亂期朝鮮關係史研究』，民族出版社，北京，2005。

- 55) 金洪培，「壬辰倭亂與朝鮮文化對日本的傳播」，『延邊大學碩士學位』，2004；閔

단행본이나 학술논문으로 제시되는 연구성과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관심사항이 확장된 것이라 하면, 학위논문 주제로 주목받은 점은 신진학자들의 관심이 임진왜란을 중시하였음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임진왜란 전공자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의미있는 경향이라 할 것이다. 학위논문의 주제는 문화교류, 정치외교사, 명군 파병, 재조지은, 인물연구, 조선과 일본의 인식문제, 전쟁원인, 사회변동, 전쟁의 영향, 은 유통, 요동과 등주 등지의 관련성, 문학 등 다양하다.

중국학계의 연구경향은 전쟁원인, 주요 전투연구, 인물연구, 요동과 薊州 등지의 전쟁영향, 封貢외교 및 明日간의 협상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왕진, 「抗倭援朝戰爭與朝中關係」, 『延邊大學碩士學位』, 2004; 武曉燕, 「明萬曆援朝抗倭初期的幾個問題」, 『內蒙古師範大學碩士學位』, 2005; 王非, 「明代援朝御倭戰爭與朝鮮的“再造之恩”意識」, 『延邊大學碩士學位』, 2005; 肖瑤, 「李成梁與晚明遼東政局研究」,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 2006; 陳寧, 「日本的历史認識及其對朝日關係的影響」, 『延邊大學碩士學位』, 2007; 劉高峰, 「壬辰倭亂時期明朝對日本政策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 2008; 趙曉華, 「明嘉靖二年爭貢之役研究」, 『山東大學碩士學位』, 2009; 潘慧, 「試論豐臣秀吉及其朝鮮政策」, 『延邊大學碩士學位』, 2009; 李承玟, 「中韓雙邊軍事外交: 演進及其展望」, 『外交學院碩士學位』, 2010; 王曉穎, 「謝杰與《虔台倭纂》」,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 2010; 李鍾九, 「壬辰倭亂時期全羅道社會狀況與義兵運動研究」, 『延邊大學博士學位』, 2010; 顏廷宏, 「壬辰戰爭影響述論」,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 2010; 楊忠艷, 「論石星」,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 2010; 劉展, 「邢玠與明代援朝抗倭戰爭」,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 2011; 王亮, 「壬辰倭亂與明人抗日援朝」, 『內蒙古師範大學碩士學位』, 2011; 崔菊華, 「明代登州在中朝交往中的重要作用」, 『魯東大學碩士學位』, 2012; 鄭俊榮, 「萬曆時期援朝抗倭戰爭前後明與朝鮮流通的銀」, 『黑龍江大學碩士學位』, 2012; 尚余子銘, 「壬辰戰爭原因再研究」, 『暨南大學碩士學位』, 2013; 盧丙生, 「壬辰倭亂期間朝鮮遣使中國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 2013; 劉香儒, 「萬曆援朝東征時期的廟堂策劃」,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 2013; 朴益信, 「再論明代兵部尚書石星在朝鮮歷史上的地位」, 『浙江大學碩士學位』, 2013; 陳福廣, 「明代援朝御倭戰爭再探析」,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 2013; 左玉平, 「萬曆援朝戰爭期間登州軍事作用與地位研究」, 『山東大學碩士學位』, 2013; 張仲良, 「明代山東半島海防」, 『安徽大學碩士學位』, 2013; 江佳麗, 「抗倭援朝時期明·鮮與明內部矛盾探析」,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 2014; 孫麗, 「朝鮮使臣情報搜集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碩士學位』, 2014; 解祥偉, 「壬辰戰爭期間朝鮮對明辯誣問題研究」, 『暨南大學碩士學位』, 2014; 李蒙蒙, 「壬辰倭亂前夕朝鮮王朝對明·日交往政策的“搖擺性”(1587-1592)」, 『暨南大學碩士學位』, 2015; 陳草原, 「明嘉靖倭患與抗倭戰爭的文學書寫」, 『西南大學博士學位』, 2015.

진행되어 전쟁의 세부사항으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⁵⁶⁾ 이러한 경향은

- 56) 張習孔, 「四百年前的抗倭援朝戰爭」, 『文史知識』, 2000-4; 趙建民, 「壬辰衛國戰爭的勝利與韓文化東漸」, 『第二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歷史卷), 2000; 萬明, 「萬曆援朝之役與明後期政治態勢」, 『中國史研究』, 2001-2; 文廷海, 「明代碧蹄館之役及中日和談考實」, 『四川師範學院學報』, 2001-2; 楊通方, 「明朝與朝鮮的壬辰衛國戰爭」, 『當代韓國』, 2001-3; 楊三壽, 「万历矿税大兴对官员的残害及其影响」,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1-5; 馮會明, 「不该被遗忘的抗倭名帥—譚纶」, 『上饶师范学院学报』, 2001-5; 楊昭全·何梅, 『中國-朝鮮韓國關係史』, 天津人民出版社, 2001; 孫衛國, 「論事大主義與朝鮮王朝對明關係」,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4; 朱亞非, 「刑玠在明代援朝戰爭中的貢獻」, 『山東師範大學學報』, 2002-6; 樊樹志, 「萬曆年間的朝鮮戰爭」,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03-6; 柳斌, 「明萬曆援朝抗倭與韓國之浙籍華人」, 『浙江檔案』, 2003-7; 刁书仁, 「論后金建立前與朝鮮的關係」, 『社會科學戰線』, 2004-1; 王秋華, 「明萬曆援朝將士與韓國姓氏」,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2; 王臻·劉玉, 「关于朝鮮與明代建州女真关系研究的理性思考」, 『東疆學刊』, 2004-3; 金洪培, 「壬辰倭亂與朝鮮朱子學的東漸」, 『東疆學刊』, 2004-4; 朱亞非, 「論明清時期山東半島與朝鮮的交往」, 『山東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4-5; 金洪培, 「壬辰倭亂與朝鮮朱子學的東漸」, 『東疆學刊』, 2004; 大成, 「東域學手記」, 『北京大學韓國學論文集』, 2004-14; 何平立, 「略論明代马政衰败及对国防影响」, 『军事历史研究』, 2005-1; 武晓燕, 「明朝出兵援朝抗倭與朝鮮使者郑昆寿—读《韩国文集丛刊·柏谷集》札记」,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4; 张荣生, 「明代苏东淮南盐区的抗倭戰爭」, 『盐业史研究』, 2005-4; 戴文武, 「日本侵华, 谋划三百多年」, 『党政干部文摘』, 2005-10; 劉寶全, 『壬辰倭亂時期朝·明關係史研究』, 民族出版社, 2005; 于晓光, 「“以夷制夷”與“以倭攻胡”—壬辰戰爭期間明朝與朝鮮對女真政策的比較研究」, 『濰坊學院學報』, 2006-1; 周韬, 「丰臣秀吉突然发布天主教驱逐令原因探析」, 『湖南广播电视大学学报』, 2006-3; 刘庆武·崔伟·张振, 「被遗忘的抗日援朝」, 『知识就是力量』, 2006-4; 劉子敏·苗威, 『明代抗倭援朝戰爭』, (香港)亞洲出版社, 2006; 周韬, 「文化冲突與丰臣秀吉的“自我神格化”」, 『日本學刊』, 2007-2; 王丁国·毛大龙, 「論嘉靖時期倭寇的发端及抗倭的結果」, 『浙江纺织服装职业技术学院学报』, 2007-2; 金洪培·黃文日, 「萬曆朝鮮役及其對東亞政治格局的影向」, 『東疆學刊』, 2007-4; 陈尚胜, 「壬辰戰爭之際明朝與朝鮮對日外交的比較—以明朝沈惟敬與朝鮮僧侶四溟为中心」, 『韩国研究論叢』, 2008-1; 陈尚胜, 「字小與國家利益: 對於明朝就朝鮮壬辰倭亂所做反應的透視」, 『社會科學輯刊』, 2008-1; 陳勝, 「字小與國家利益: 對於明朝就朝鮮壬辰倭亂所做反應的透視」, 『社會科學輯刊』, 2008-1; 關慶凡, 「論明末援朝抗倭之得失」, 『黑龍江史志』, 2008-1; 杨理连, 「天津在明朝抗倭援朝戰爭中的作用分析」, 『鄆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8-1; 李德霞, 「日本德川幕府與明朝的貿易关系論析」,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8-4; 陶德利, 「浅谈秀吉侵朝」, 『林区教学』, 2008-11; 伍玉西, 「地緣政治與明朝對外政策」, 『求索』, 2009-3; 郑洁西, 「万历朝鮮之役前后的在日明朝人」, 『唐都學刊』, 2009-3; 黃尊嚴, 「試論壬辰戰爭對明朝的消極影響」, 『煙台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9-4; 黃尊嚴·顏廷宏, 「試論壬辰戰爭對明朝的消極影響」, 『烟台大學學

전쟁사를 통해 현재의 목적성을 지향하였던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한 것으로 인물측면을 예로 들면, 파병 명군의 인적구성, 파병기간 중 인적교류, 강남과 북방출신의 갈등, 임진왜란 이후 정치적 경력, 출신별 파병인물의 성향, 파병인물의 조선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报(哲学社會科學版)』, 2009-4; 朱法武, 「論明神宗與援朝御倭戰爭」, 『東岳論叢』, 2010-1; 「壬辰倭亂中朝鮮對中日議和立場探析」, 『社會科學輯刊』, 2010-2; 顏廷宏, 「試論壬辰戰爭對東亞國際關係的影響」,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2; 廷宏, 「試論壬辰戰爭對東亞國際關係的影響」, 『聊城大學學報』, 2010-2; 石少穎, 「試論“壬辰倭亂”中明朝與朝鮮對日本“封貢”問題的交涉」, 『許昌學院學報』, 2010-4; 鄭浩西, 「萬曆二十一年潛入日本的明朝間諜」, 『學術研究』, 2010-5; 韓西芹, 劉汪洋, 「馮玉祥日居 悲壯情溢“抗倭廬”」, 『今日重慶』, 2010-8; 曲朝霞, 「論劉備與丰臣秀吉成功歷程的共通性」, 『現代交際』, 2010-11; 趙樹國, 「論邢玠在援朝御倭戰爭中的軍事戰略戰術」, 『滄桑』, 2010-12; 劉寶全, 「壬辰倭亂時期的朝鮮《朝天錄》研究」, 『社會科學戰線』, 2011-2; 魏鵬·顏廷宏, 「壬辰戰爭前後明政府決策失誤探究」, 『北方論叢』, 2011-3; 陳志剛, 「明朝在朝鮮之役前後的軍事情報活動論析」, 『學習與探索』, 2011-7; 上林, 「《最終兵器: 弓》皇太極兩征朝鮮之役」, 『文史參考』, 2012-2; 芝星, 「泉州德化县发现明代抗倭土樓」, 『泉州師範學院學報』, 2012-3; 張凱峰, 「明朝抗日援朝掏空國庫, “后金”乘虛而入」, 『開心老年』, 2012-3; 孫衛國, 「朝鮮史料視野下的石星及其後人事迹考」, 『古代文明』, 2012-4; 陳尚勝, 「壬辰御倭戰爭初期糧草問題初探」, 『社會科學輯刊』, 2012-4; 韓東育, 「“萬曆朝鮮之役”四百二十年祭“壬辰倭亂”與明廷的“朝鮮保全”」, 『讀書』, 2012-10; 劉曉東, 「“萬曆朝鮮之役”四百二十年祭“扶危字小”與萬曆出兵朝鮮」, 『讀書』, 2012-10; 刁書仁, 「“萬曆朝鮮之役”四百二十年祭 朝鮮對日本“假道入明”的應對」, 『讀書』, 2012-10; 劉曉東, 「“扶危字小”與“萬曆朝鮮之役”」, 『歷史教學(中學版)』, 2012-12; 孫衛國, 「兵部尚書石星與明代抗倭援朝戰爭」, 『朝鮮·韓國歷史研究』, 2013-2; 靳大成, 「走出東北亞歷史敘事的迷霧—〈壬辰倭亂〉中譯本序」, 『文化縱橫』, 2013-4; 董兴华, 「从“壬辰倭乱”看16世纪的东亚国际格局」, 『滄桑』, 2013-4; 劉幸·王夏凱, 「明朝山東抗倭情況及東南沿海抗倭活動中的“山東因素”」, 『齊齊哈爾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13-4; 鄭浩西, 「沈惟敬毒杀丰臣秀吉逸聞考」, 『學術研究』, 2013-5; 董兴华, 「从“壬辰倭乱”看明代山東的戰略地位」, 『科教導刊(中旬刊)』, 2013-9; 韓東育, 「丰臣秀吉的征伐計劃」, 『國家人文歷史』, 2013-21; 鍾少昇, 范中义, 「明朝援朝抗日戰略策略把握之得失」, 『軍事歷史』, 2014-1; 楊海英, 「毛國科使日考—兼談萬曆援朝東征後期的和議問題」, 『明史研究論叢』, 2014-2; 商傳, 「明萬曆援朝抗倭後朝鮮社會秩序再建—韓國文獻《社約輯錄》研究」, 『求是學刊』, 2014-5; 范傳南, 「明代北部邊防戰略思想變遷刍議」, 『東北史地』, 2014-7; 郭銳, 「近代以前日本的朝鮮觀」, 『史學月刊』, 2014-9; 張程, 「淺析明代援朝抗倭戰爭初期日本速勝的原因」, 『新西部(理論版)』, 2014-9; 池沙洲, 「一場不戰而勝的海戰」, 『小學生時代』, 2014-9; 劉永連, 楊兆貴, 趙殷尚, 「壬辰倭亂時期援朝明軍兵力考」, 『중국학보』 76, 2016; 黃修志, 이경민(역), 「왜란과 호란 시기 조선 광해군의 서적외교와 동아시아 질서」, 『석당논총』 65, 2016.

분석하여 풍부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국제질서와 중화의식을 임진왜란과 연관시켜 분석하는 경향이다. 사대주의의 입장에서 조명관계를 분석하고, 임진왜란에 명군의 출병을 설명함으로써 전란중 貢獻, 군량지원 등을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조선에서 재조지은의 시대흐름을 양태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지역학의 측면에서 전쟁관련 지역의 사회변동과 경제문제를 임진왜란 파병으로 연결시켜 분석하여 명의 책봉국으로서 책임감이라 인식했다. 기존 연구성과에서 다양하게 분석되었듯이 명의 파병은 순망치한의 지정학적 필요성에 이루어진 것이며,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한 군사적 목적의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명대 조선에 대한 파병명분으로 강조하였던 바를 그대로 답습하여 논리를 전개한 점은 한계이다.

중국학계의 임진왜란 연구경향 및 성과를 정리하면, 분야별로 전쟁의 원인, 진행과정과 전투, 인물관련 연구, 명군 파병의 배경과 원인 및 활동, 역할에 대한 평가, 명 주도로 진행된 강화교섭, 파병의 결과로 재조지은과 전후처리 문제 등이다. 초기에 비하여 연구가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학위논문을 비롯한 관심이 고조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국 중심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한계가 있다.

일본학계는 일찍부터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졌다. 임진왜란 이전의 일본사 전개, 임진왜란 시기의 국제정세, 전후 일본의 안정 등이 실질적으로 근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결과였다. 임진왜란의 배경으로 전국시대의 통일과 전국적 안정, 16세기 무역의 확장, 안정적인 막부체제를 근세국가로 인식하는 경향 등이 작용되었다. 구체적으로 풍신수길의 공명심에 기반한 영토확장 야욕 때문에 전쟁이 발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勘合貿易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발, 전국통일과정에서 반발세력에 대한 무마와 군사적 역량을 대외적 소진을 위해 발발, 막부체제의 근세국가로 진전을 위해 발발, 근세적인 국제

교역이 확대되면서 무역육구의 불충족에 기인했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다.⁵⁷⁾

일본학계는 임진왜란 직접 당사국으로 한국학계 못지않게 방대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분량의 많음뿐만 아니라 연구분야도 전쟁배경, 전쟁과정(전투, 군수, 수군, 왜성, 피로인, 문화전파, 강화교섭 등), 전쟁결과 등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전쟁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에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일본군의 승리에 집중된 전투사 정리, 일본 제국주의 시대 참모본부에서 침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리, 참전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⁵⁸⁾ 지상전투뿐만 아니라 해전 역시 일본군의 주요 전투였기 때문에 일본학계는 해전을 위한 군수체계 및 해상수송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일본수군의 운송체계, 군선(安宅船), 수군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일본군의 수군전력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을 파악할 수 있다.⁵⁹⁾

57) 池内宏, 『文祿慶長の役』正編 第一, 南滿洲鐵道, 1914(1987年 吉川弘文館復刊); 辻善之助, 「豊臣政權の支那朝鮮征伐の原因」, 『海外交通史話』190, 東亞堂書房, 1917; 鈴木良一, 「秀吉の朝鮮征伐」, 『歴史學研究』155, 1952; 岩澤愿彦, 「秀吉の唐入りに關する文書」, 『日本歴史』163, 1962; 田中健夫, 「朝鮮の役の分析視覚について」, 『九州史學』33・34, 1966; 北島萬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役』, 校倉書房, 1990; 中村實, 「수길 정권과 임진왜란의 특질」, 『아시아문화』8, 1992; 村井章介, 「임진왜란의 역사적 전제 : 일조관계사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7, 1997; 岸本美緒, 『東アジアの'近世』』, 山川出版社, 1998; 米谷均, 「〈全浙兵制考〉 近報倭警에서 본 日本情報」, 『한일관계사연구』20, 2004; 津野倫明, 「壬辰倭亂の原因・目的に關する日本の諸學說」, 『일본학』28, 2009; 石田徹, 「메이지(明治) 시대에 있어서 임진왜란」, 『경남문화연구』33, 2012.

58) 木下眞弘, 『豊太合征外新史』, 青山堂, 1893; 池内宏, 『文祿慶長の役』正編 第一, 南滿洲鐵道, 1914; 『文祿慶長の役』別編 第一, 東洋文庫, 1936; 參謀本部, 『日本戰史 朝鮮役』, 偕行社, 1924;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中, 吉川弘文館, 1969; 北島萬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株式會社そして, 1982; 「임진왜란과 진주성 전투」, 『남명학연구』7, 1997; 「임진왜란과 이순신 -사천해전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8, 1998.

59) 渡辺世祐, 『安土桃山時代史 : 日本時代史』8, 早稲田大学出版部, 1926;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空と海社, 1942; 三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軍役

일본군의 파죽지세 승리에 충격을 준 것은 조선의 관군이 아닌 의병이었다. 의병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력, 자신의 향촌을 지키는 군사력으로 지방 사대부와 백성이 혼합된 형태였다. 수군의 패전, 의병에 의한 저항에 직면한 일본군은 의병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일본학계도 임진왜란에서 의병의 역할을 인식하여 방대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⁶⁰⁾ 지역별 의병장 연구, 민중사의 입장에서 의병평가, 신분상의 차이로 인한 의병의 한계, 忠義軍과 鄉兵으로서 성격, 전투이외 전투지원으로서 의병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투와 전투지원의 역할은 의병뿐만 아니라 승병조직도 활용되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의 국력을 총동원한 일본 국내의 전쟁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준비과정에서 진행과정, 전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정세변화, 각 大名의 역할과 입장, 전쟁지원을 통해 구주지역의 발전과 고충 등이 연구과제였다.⁶¹⁾ 병참을 위한 물자수송과 수송에 따른 이윤 추구하고 상인세력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2차례 출병에 따른 군수지원 체계의 혼란과 갈등 등이 발생했다.

일본군의 전쟁과정에 대한 일본학계의 관심은 전쟁기간 중 상당시간을

體系について, 『史學雜誌』 75-2, 1966.

- 60) 池内宏, 『文祿慶長の役』別編 第一, 東洋文庫, 1936; 旗田巍, 『朝鮮史』, 岩波書店, 1951; 貫井正之, 「‘壬辰倭亂’初期における朝鮮人民の活動について」, 『朝鮮研究月報』 23, 1963; 「豊臣秀吉の朝鮮侵略戦争における朝鮮人民の動向について-特に朝鮮義兵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 1983; 『豊臣政權の海外侵略と朝鮮義兵研究』, 1996; 「壬辰倭亂における義兵活動と民衆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89; 矢澤康祐, 「‘壬辰倭亂’と朝鮮民衆のたたかい」, 『人文學報』 118, 1977; 仲尾宏・曹永祿 編,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 明石書店, 2002; 貫井正之,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본 임진왜란」, 『남명학연구』 8, 1998; 「壬辰戦争に對する忘憂堂郭再祐先生の對応」, 『동아인문학』 7, 2005.
- 61) 三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軍役體系について」, 『史學雜誌』 75-2, 1966; 新城常三, 「朝鮮役に於ける水運の諸問題」, 『交通文化』 20, 1942; 中村質, 「朝鮮の役と九州」, 『九州史學』 33・34, 1966; 北島万次, 「豊臣政權の軍役體系と島津氏」, (北島正元編) 『幕藩制國家成立過程の研究』, 吉川弘文館, 1978.

보냈던 한반도 남해안에 잔존한 왜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⁶²⁾ 7년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일본군이 주둔하며,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왜성은 최전선이자 사회경제적으로 주변 지역과 관련성을 가졌던 장소였다. 임진왜란 일본군의 최대 승리 가운데 하나였던 울산 성전투를 왜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현존하는 거제도, 순천, 부산, 웅천 등의 왜성에 대한 실측을 통해 왜성을 알리는 연구, 일본의 성곽과 비교분석한 연구, 왜성에 대한 높은 일본의 관심을 반영하여 지리, 건축, 문헌, 전쟁 등의 측면에서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학계의 이러한 연구는 임진왜란시기 일본군의 왜성운영방식, 전투양상, 병력규모와 배치, 성곽구조의 활용성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조명연합군의 전투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국통일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였던 조총은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최초의 화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전쟁으로서 성격을 가지도록 했다. 조선과 명의 화포와 일본의 조총은 위협적인 무기였으며, 이러한 화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였는가 하는 점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을 좌우할 정도였다. 특히, 일본학계는 조총을 비롯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성과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⁶³⁾ 조총, 화포, 군선 등 당시 삼국의 화기를 비교분석하고, 전쟁이 진행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조총을, 일본은 조선과 명의 화포를 받아들여 습득하고 활용하고자 했음을 설명했다. 조선은 주로 항왜를 통해 조총지식을 습득했다.

62) 李進熙, 「倭館・倭城を歩く」, 『季刊三千里』 30, 三千里社, 1982; 黒田慶一, 「西生浦倭城の特輯にあたって」, 『倭城の研究』 5, 2002; 高田徹, 「熊川倭城の縄張り」, 『倭城の研究』 5, 2002; 倭城址研究会, 『倭城』 I, 1979; 城郭談話會, 『倭城の研究』 I~V, 1979~2002; 黒田慶一 編, 『韓國の倭城と壬辰倭亂』, 岩田書院, 2004; 太田秀春,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異文化の遭遇・受容・變容-』, 清文堂, 2006; 吉岡新一,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火器についての研究」, 『朝鮮學報』 108, 1983; 宇田川武久, 「壬辰・丁酉の倭亂と李朝の兵器」,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7, 1988.

63) 吉岡新一,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火器についての研究」, 『朝鮮學報』 108, 1983; 宇田川武久, 「壬辰・丁酉の倭亂と李朝の兵器」,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7, 1988.

전쟁과정에 조선과 일본은 상호간에 투항 및 피로인을 획득했다. 항왜의 경우는 그 숫자가 피로인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지만, 항왜는 조총기술의 조선전래, 향후 광해군대와 인조대까지 군사세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降倭, 投降倭, 歸順倭, 生擒倭, 被虜歸順倭 등 자발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서술한 반면, 일본학계는 초기에 항왜를 국가주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서술하여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선에 의한 회유로 인식하였다가 점차 沙也可(金忠善)의 임진왜란 중 중군을 정리한 연구, 조총의 전수, 전쟁기간 및 종전이후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자료정리가 진행되었다.⁶⁴⁾

항왜보다 숫자와 영향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피로인은 전쟁 중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에 관한 내용으로 전쟁성격을 노예전쟁이라 칭할 정도로 주된 관심분야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피로인은 단순한 전쟁성과를 위한 포로개념을 넘어 경제적 관점이 오히려 더 중시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일본학계의 피로인 연구는 한국 학계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전쟁에 참전한 大名들이 경쟁적으로 피로인을 일본으로 잡아간 실정이다보니 실질적으로 피로인의 목적, 납치, 분류, 역할, 경로, 송환, 실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⁶⁵⁾ 피로인에 대한 접근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어

-
- 64) 幣原坦, 「壬辰丁酉倭亂および戦後の日朝交渉におけるの活動に關する考察」, 『歴史地理』10-1, 1904; 中村榮孝, 「朝鮮役の投降倭將金忠善-その文集と傳記の成立-」, 『日鮮關係史の研究』中, 吉川弘文館, 1969; 内藤篤輔, 「壬辰丁酉役における謂ゆる‘降倭’について」,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6; 歴史群像シリーズ 35, 『朝鮮の土となった朝投降武將‘降倭’』, 1993; 仲尾宏, 「壬辰倭亂と降倭-沙也可」, 『朝鮮通信使と壬辰倭亂-日朝關係史論』, 明石書店, 2000;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壬辰倭亂と秀吉・島津・李舜臣』, 校倉書房, 2002; 貫井正之, 「降倭論」, 『豊臣政權の海外侵略と朝鮮義兵研究』, 青木書店, 1996.
- 65) 平井連次郎, 「文祿役の我が工芸に及ばせる影響」, 『弘安文祿征戰偉績』, 史學會, 1905; 山口正之, 「朝鮮における被虜人の行方」, 『青丘學叢』8, 1932; 徳富猪一郎, 「壬辰の役と朝鮮文化の移入及び其の感化」, 『積翠先生華甲壽記念論纂』, 積翠先生華甲壽記念會, 1943; 内藤篤輔,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部, 1976; 鶴園裕, 「日本近世初期における渡來朝鮮人研究」,

피로인과 渡來人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참전 일본군에 의해 강압적으로 납치된 피로인에 비하여 도래인으로 보는 관점은 조선의 신분제적 모순에 의해 전쟁이란 특수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온 것으로 분석했다.

피로인은 단순히 일본 국내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까지 팔려나갔던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일본학계에서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 작성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피로인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일부 연구에서 일본의 특수한 사회구조에서 피로인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생활했는지 분석한 연구도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국교재개에 피로인문제가 매개체가 되었던 점에 중점을 두고 조·일간 쇄환협상과 통신사문제를 연구한 분석도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납치된 조선 도공의 영향으로 일본의 도자기산업 발전을 조망한 연구, 도공들의 생활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피로인의 신분별 대우 및 생활을 정리한 연구, 조선으로 송환된 피로인의 생활과 조선의 대우 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상과 같이 임진왜란은 한국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높은 관심과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전근대 동아시아를 격변으로 몰아갔던 임진왜란에 대해 역사서술 및 연구관점이 자국사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의 공통되고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민족주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인 역사연구방법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990年 科學研究報告書』, 1991; 北島万次, 「李朝の焼きものと薩摩の焼きもの—壬辰倭亂と薩摩の陶工をめぐって」, 『歴史評論』 595, 1999; 米谷均, 「近世日本關係における戰爭捕虜の送還」, 『歴史評論』 592, 1999; 「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戰爭俘虜の送還」, 『歴史評論』 595, 1999; 「17세기 日·朝 關係에서의 피로인의 송환—惟政의 在日 쇄환활동을 중심으로—」,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0; 仲尾宏, 『朝鮮被虜人と壬辰倭亂』, 明石書店, 2000; 「壬辰·丁酉倭亂の朝鮮人とその被虜定住·歸國」, 『朝鮮通信社と壬辰倭亂』, 明石書店, 2000.

5. 향후 연구제안

이상의 한·중·일 학계의 방대한 연구성과를 통해 임진왜란의 전반적인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사의 측면에서 임진왜란을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망이 되는 연구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기존의 방대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역사사실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엄연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학계의 경우, 임진왜란의 제 연구분야의 편차가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보다 사상사적 접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⁶⁶⁾ 이에 몇 가지 향후 요구되는 연구중점을 제안한다.

첫째, 임진왜란에 관련된 통계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모든 역사연구에 기본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존하는 사료의 한계 때문에 완벽한 통계자료가 정리되기는 어렵더라도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도깊은 임진왜란 연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든 역사연구의 기본사항이 사실관계의 정리이다. 특히 전쟁과 같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분야는 기본적인 통계사항의 검증과 정리가 필수적이다. 전쟁에 동원되었던 병력, 무기체계, 군량, 군수규모, 재정규모, 인원통계 등이 정리된다면 임진왜란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자료가 될 것이다.⁶⁷⁾ 이와 함께 임진왜란 관련 많은 사료가 발굴되고 정리되어 연구에 활용되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 연대기 사료를 기본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임진왜란 관련 기록, 문헌자료, 일기류, 문학작품 등 사료발굴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잔존

66) 허선도, 「壬辰倭亂論-올바르고 새로운 認識-」, 『천관우선생 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85; 최영희, 「임진왜란 연구를 위한 제언」, 『아시아문화』 8, 1992; 최영희,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남명학연구』 7, 1997.

67) 박희봉, 「임진왜란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의미: 참전일본군 및 손실자수」, 『국가정책연구』 28(4), 2014.

하는 사료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정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진왜란 연구의 제 분야를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융합하여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쟁사의 측면에서 동원체계는 군역 체계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전쟁이전 국가수취체계가 허실화되는 상황에서 신분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군역의 기본이 되는 양인들의 분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발발과 함께 사회혼란이 심화되자 규정화된 군역체계에 따라 병력동원은 불가능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군역체계를 이해하고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향촌사회의 신분제적 갈등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임진왜란 당시 병력동원의 실상이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동원체계뿐만 아니라 군수체계, 군량체계 등 전쟁사 연구의 제반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통합적 시각의 연구접근은 전쟁사, 전투사 측면에서 더욱 절실하다. 연대기 자료의 기록을 바탕으로 단순한 병력과 무기의 비교만으로 분석하기엔 전쟁사, 전투사의 전모가 정리되기 어렵다. 파병된 명군의 일반적인 행군양식, 전투양식 및 절차에 대한 이해, 조선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 당시 무기의 구체적인 제원 및 성능에 대한 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개별 전투 및 전쟁사의 의미가 파악될 것이다.

셋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명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 평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의미부여하는 것으로 역사학에서 늘 고민하는 내용이다. 임진왜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에 대한 명칭은 한국학계에서 일부 ‘조일 7년 전쟁’,⁶⁸⁾ ‘조일전쟁’⁶⁹⁾, ‘壬辰戰亂’⁷⁰⁾ 등을 주장하지만, 통상 ‘임진왜란’이라 부르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 학계에서 학술적 객관성을 담보하는 ‘임진전쟁’을 주장하여 주목된다.⁷¹⁾ 반면에

68) 손진태, 『國史大要』, 을유문화사, 1949.

69) 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전편)』, 국방군사연구소, 1996.

70)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북한은 ‘임진조국전쟁’이라 부르고,⁷²⁾ 중국학계는 명대에 ‘萬曆東征’이라 하였지만, 중국입장에서 전쟁성격과 대상을 명시하여 ‘抗倭援朝戰爭’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부르는 용어는 도요토미 치세하의 임진왜란 당시와 에도(江戶)막부 초기, 도요토미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받아 ‘唐入’, ‘高麗陣’, ‘朝鮮陣’, ‘豊太閤의 朝鮮役’, ‘朝鮮征伐’, ‘征韓’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정한’의 경우, 막부 말부터 메이지유신 전후기간에 급증하였으며,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인을 동포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朝鮮征伐이란 표현을 지양하여 임진왜란 당시 일본 고요제이 천황(後陽成天皇)의 연호를 따서 ‘文祿・慶長の役’이라 부른다.⁷³⁾ 이처럼 동일한 전쟁을 두고 당사국의 명칭이 다른 점은 어찌보면 자국의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편, 타당한 평가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한중일 학계의 보다 긴밀한 학술교류를 통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학술용어를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⁷⁴⁾

넷째, 전근대 동아시아의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임진왜란은 단순 전쟁사가 아닌 정치외교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경계인으로 존재하였던 일본이 전국통일 후 풍신수길의 개인적 요인, 감함무역의 필요성, 통일과정의 군사적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국제전쟁이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경계인적 존재였지만, 지정학적 의미에서 언제라도 그 국제질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었다.⁷⁵⁾

임진왜란은 원인, 명의 파병, 조선의 재조지는 흐름과 조명관계,

71)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72)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통사』, 과학백과출판사, 1977.

73) 한명기, 「'난동', '정벌', '원조'를 넘어 : '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위하여」, 『역사비평』 83, 2008.

74) 김기봉, 「1592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문명사적 관점에서의 성찰」,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75)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한길사, 2009. 432쪽.

조선과 일본의 국교재개, 후금의 흥기와 명청교체, 일본의 강호막부 등장 등에 이르기까지 16~17세기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격변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진왜란을 국제전쟁으로서 접근할 필요와 대외관계사와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전쟁과 대외관계사 연구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고,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보다 진척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⁷⁶⁾ 임진왜란 이전 명 중심 국제질서의 책봉국으로서 명의 정세와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인지 및 대응, 니탕개의 침입이후 조선의 대외인식 및 국방정책, 일본의 통일과 전쟁준비가 가지는 대외관계사적 의미, 명의 파병결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 파병에 따른 조명의 군사지원체계가 가져온 군사·경제·사회적 영향, 침략군 지원을 위한 일본 해운체계의 군사·국제교역 상황과 영향, 조·명·일의 강화교섭 논리와 상황, 후금을 포함한 국제정세 변화와 조·일 국교재개과정 등이 전쟁사의 수준을 넘어 국제관계사와 연계한 연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명의 참전목적 및 이에 따른 참전 명군의 전쟁지도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참전한 명군은 조선 조정이나 군대의 불만이 고조될 정도로 소극적인 자세로 전쟁에 임하고, 강화회담을 통해 병력과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전쟁을 종료시키고자 했다. 당시 명의 상황과 국제정세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설명될 수 있다. 즉, 전쟁사, 의병사의 한계를 넘어 국제관계 속의 임진왜란을 조망하는 성과를 기대한다.

다섯째, 국제전쟁으로 임진왜란을 인식할 필요성의 연장선에서 자국사 중심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자국사 중심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민족주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화를

76) 최영희 외, 『임진왜란의 재조명』, 국사편찬위원회, 1992;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정두희, 이경순 역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한일관계사연구회논집 편찬위원회 편,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2010; 한일문화교류기금 동북아역사재단 편,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담보할 수 없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연구가 현재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역사학을 위한 역사연구가 아닌 동북아시아 평화지향의 전쟁사 연구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조·명·일 등 다수의 국가가 주체로 벌어진 역사사건이다. 즉 관계사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내재되므로 일국사, 자국사 중심의 연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조선의 군제, 전략, 전술,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명과 일본의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임진왜란이 국제전쟁임은 모든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국제전쟁이면 관련국 조선, 명, 일본, 여진 등의 정치제도, 군사편제, 지휘체계, 무기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선은 명군과 연합으로 일본군과 전쟁을 치렀다.⁷⁷⁾ 그러나 명대 군사편제와 군사지휘체계, 명군의 군사력, 명대 군사정책 및 당시 정세에 대한 이해없이 임진왜란에 임하는 명군에 대해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사실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 연구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여섯째, 임진왜란 연구에서 시대상황과 사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학계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임진왜란을 비교사적으로 검토하거나 리더십, 호국정신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⁷⁸⁾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에 한·중·일 삼국이 참전한 국제전쟁이다. 국제전쟁이란 동일성으로 인해 임진왜란과 6·25전쟁을

77) 한명기, 「정유재란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군사』 38, 1999; 최두환, 「임진왜란시기 朝明聯合軍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 논총』 19, 2013.

78) 서인한, 「임진왜란 초기의 패인과 그 교훈」, 『군사』 12, 1986, 이우성, 임형택, 「임진왜란, 민족의 어제와 오늘」, 『창작과비평』 20(4), 1992; 양재숙, 「조선이 이긴 전쟁 1」, 『역사와 사회』 8, 1992; 「조선이 이긴 전쟁 2」, 『역사와 사회』 9, 1992; 김석근, 「서애 유성룡과 임란기 국방정책의 혁신」, 『역사와 사회』 33, 2004; 김강녕, 「임진왜란의 전황과 교훈에 관한 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1(1), 2008; 김문준, 「重峯 趙憲과 700義士의 民族精神史的 意義」, 『한국사상과 문화』 58, 2011; 곽효문, 「임진왜란기 광재우장군의 섬김리더십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3, 2013.

비교분석하는 연구성과가 나왔으며, 정치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⁷⁹⁾ 그러나 계서적인 명 중심 국제질서와 왕국 체제의 신분제사회에서 조선이 치렀던 임진왜란과 현대사회의 6·25 전쟁을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진왜란은 사대외교가 정상적인 외교개념이었던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성리학적 사상체계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 국가가 운영되던 조선이 당면한 국제전쟁이었다. 전쟁에 관련된 국가시스템과 인물의 사상체계가 현대사회의 운영체제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이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전쟁의 진행과정을 정량적으로 비교한다면 두 전쟁의 비교분석 틀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사료에 대한 세밀한 번역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비교분석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임진왜란관련 인물과 사건의 리더십, 호국정신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에 적용될 수 있다. 호국정신을 강조하는 국난극복사의 연구경향은 자칫 자국사 중심의 목적성이 강한 연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리더십의 강조는 조선시대의 국가체제와 사료에 대한 정확한 번역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 리더십 이론의 무리한 적용으로 현대적 관점으로 이순신을 비롯한 임진왜란 관련 인물과 전투를 분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임진왜란 연구의 방대하고 높은 연구성과에 대한 『군사』지의 역할이다. 『군사』지는 전통시대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꾸준히 도출하여 왔다. 특히, 100호에 이르기까지 단일 학회지에서

79) 이원혁,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의 역사적 대비」, 『군사』 15, 1987; 김용욱, 「한국역사에 있어 전쟁피로자, 피납자의 송환문제: 임진, 정유왜란, 정묘, 병자호란, 6·25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권 1호, 2004; 김명섭, 『6.25전쟁의 지정학: 임진왜란과의 비교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정영순,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비교사적 검토」, 『사회과학교육』 51(4), 2012; 김명섭, 김석원, 「관념충돌로서의 전쟁: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관념적 기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3(3), 2013.

임진왜란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다양하게 진행된 경우도 드물다. 임진왜란과 전통시대 군사문제 전공자의 지속적인 논문투고와 연구성과를 학계에 소개하고 군사사와 임진왜란 연구사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리더십, 전투양상에 대한 연구경향은 철저한 사료수집 및 해석을 통한 분석이 아니라 기존 연구성과와 번역본을 바탕으로 군경협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한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적지 않다. 연구대상 시대의 사료를 읽어내는 한문사료의 독해능력이 부재하여 班常의 신분제 사회의 특성, 조선시대 군사지휘체계, 선조대 사회구조와 경제질서 등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임진왜란 연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연구흐름에 대한 엄격한 심사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군사』가 근현대사의 군사문제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통시대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폭넓게 축적한다면 군사사 연구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고투고일: 2016.8.30, 심사수정일: 2016.9.8, 게재확정일: 2016.9.9.]

주제어 : 임진왜란, 『군사』지, 통계학적 정리, 국제관계사, 의병, 명군파병, 강화교섭

<ABSTRACT>

Retrospect and Prospect of Studies on the Imjin War

Kim, Kyeong-lok

The point of this paper is retrospect of studies on the Imjin War(壬辰倭亂) and prospect. Studies on the Imjin War conducted in Korea, China and Japan have made progress in many aspects, but the hard truth is the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same historic event. So, This paper will arrange a product of history's study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formation runs thus, Before the war: Background, causes and so on, course of the war : strategy, battle, navy, admiral Yi Sun-shin(李舜臣), send a Ming army(明軍派兵), righteous armies(義兵), monk soldiers(僧兵), logistics(軍需), Negotiations and truce(講和交涉), society · economy(社會 · 經濟) and so on, postwar : hangwae(降倭), Joseon captives(被虜人), cultural exchange(文化交流), person(人物), woman(女性), textbook(教科書), literature(文學), recognition and description of future generations and so on, research trend of history in China and Japan, and I wish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search.

The 1592-98 Imjin War was sixteenth century Asia's biggest international conflict and a war that set the tone for relations between the three major combatants, Korea, China and Japan. It seems to be geopolitical destiny that the peopl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for several centuries had to endure the tragedy of war again and again. The brutality of the Japanese invas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not only sowed the seeds of bitter resentment and hostility toward the Japanese, but also made the memory of war grow deep root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Korea's studies of the war, on the other hand, have been focused on a mental perspective such as how to overcome the war, roles of army raised in the name of justice and key figures, and effects of the war on

Korea. Taking into both of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account should be the way studies on the Imjin War are conducted.

To this end, researching and studies on many aspects are required. These aspect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First, Korea's studies have to collect, classify, and statistical readjustment at original documents and monuments in Imjin War historical materials. Second, the war should be looked into from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Asia's perspective to understand that the war caused conflicts of cultures and brought changes as well as it took place when cultures were exchanged through the seas. Third, objective terms need to be defined for the studies depending on the view of whether to see it as an invasion of Japanese raiders or a war between two countries. Fourth, Korea's studies need access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Fifth, Korea'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unification and multiculturalism and ha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national history. Sixth, That should correct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times and historical material. Furthermore, 〈Military history(軍史)〉 have to collecting paper and supporting academic activity in military history's aspect.

Key words : The Imjin War(壬辰倭亂), Military history(軍史), Statistical readjustment(統計學的 整理),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國際關係史), Righteous army(義兵), send a Ming army(明軍派兵), Negotiations and truce(講和交涉)

